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732 1982년1월27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Wednesday, January 27,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영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회관이전문제 관리위에 위임

한인회총회 정족수 100명 겨우채워

82년도 토론토한인회 총회가 23일 하오 토론토한인회관에서 열렸다. 현 한인회관에서 열리는 총회로는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이번 총회에는 근 4만회원중 100명만이 참석했다. 교민사회의 핫 이슈로 등장한 회관이전문제는 이날 총회의 결의로 모든 문제가 한인회관관리위원회(위원장 : 조한철)로 일임됐다. 이날 감사보고에서 문인식 감사는 신구회장단의 사무인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실질적 감사가 불가능 하였다고 보고했다.

총회에 앞서 한인회는지난 22일 전두환 대통령의 82년 국정연설문중 통일에 관한 제안을 지지한다는결의문을 발표했다.

23일 하오2시 예정이던 한인회 총회는 하오4시50분까지도 정족수(100명)미달로 개회하지 못했다. 그동안 한인회 임원들은 전화통에 붙어 인원 동원에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하오4시30분 박인순 회장은 정족수미달로 유회를 선언하고, 총회대신 장영채 부회장이 전대통령의통일에 관한 제안을 낭독, 이어 박회장의 통일제안 지지결의문 발표가 있었다.

이때 임원중 하나가 총회 성원이 되었다고 말 하 자 박회장은 총회를 재개했다.

신영식 총무의 사회로총회는 애국가, 캐나다국가봉창, 박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81년도 사업보고, 감사보고와 82년도 사업계획및 예산통과순으로 진행 되었다.

감사보고에서 문인식 감사는 전임 강우석 회장단의 비협조로 구회장단의재정집행상의 계수를 전혀확인할 수 없어 회계 종합보고서로 대치한다고 했다. 몇몇 회원은 "이같은 행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3만 한인교포를 대표하는기관의 수치이다"면서 "감사완결을 못했으니 임시총회를 열어 그때 감사보고를 하라"고 제의했다.

이에 박회장은 그간의고충을 설명하고 "앞으로 더 조사한다고 해도 진전이없을 것이며 이미 이사회에서 절충, 합의가 되었으므로 그대로 통과시키자" 고, 호소, 이의를 제기했던 회원들이 재의를 철회했다.

82년도 사업계획및 예산안에서 밝혀진 주요사업으로는 「한인의 날」행사, 카라반 행사,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교민을 위한 연말파티및 「TV한국」운영등이 있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포함한 82년도 총 예산액은 $172,700로 밝혀졌다.

이날 총회의 관심의 촛점은 한인회관 이전문제였다. 회관이전에 관한 토의에 앞서 조한철 관리위원장은 그 동안의 경과를 보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7%가 이전을 찬성했음을 밝혔다. 이전찬성자중 60%는 확장이전및 블로아로 옮기기를희망했음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인회는 작년 12월2일 이전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가진 결과 63명이 모인중 10명이 이전찬성, 3명이 반대, 2명이 보류하자는발언을 했다.

토의에 들어가 정인기(전 노년회장)씨는 한인회 발전을 위해 이전에 찬성하며 81년10월 이사회에서 결정한대로 모든 이전문제를 관리위원회에 일임할것을 동의했다. 이에 강신봉(전 한인회장, 연합회장)씨는 현재 50명도 채 못되는 회원들이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결의한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며 다음에 임시총회를 소집, 이 문제를 다루자고 개의했다. 강씨는 현 집행부가 이 문제를 경솔히 다룰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외에도 여러 회원들의 찬반토의가 있은후 김문량(전 한인회장)씨의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거수투표 방법을 채택, 관리위원회에 전적으로 위임하자는 정인기씨의 안이 가결되었다.

그러나 현 한인회관구입시 한국정부로부터 20만달러의 보조를 받아 이전문제에는 이곳 총영사관의승인이 필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 25일 이상훈 총영사는 "한국정부가 현 한인회관의 매각등에 대한 권리가 있으나 회관이전 자체가 한인들의기부금등이 더 많이 모여 발전적으로만 이루어 진다면 아무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전문제를 일임받은 한인회관관리위원회는 위원장 조한철씨를 비롯, 박인순, 전택균, 장순채, 조영호, 성용창,(이상 총회 참석자) 황훈, 김봉균, 이영목, 이영현, 윤여화, 총영사의 12명으로 구성됐으나 이날 총회에는 6명만 참석했다.

◇토론토 한인회 정기총회-예정보다 2시간이나 늦어서야 겨우 성원(100명)됐다.

오늘의 예금금리 (1월25일 현재)			
종 별	기 간	신 용 조 합	일 반 은 행
정 기 예 금	30~59일	14.5%	13.25~14%
보 통 예 금 (매일저축)		13%	12%
한인신용조합 ☎ : 533-9387~8			

한국인 구정 즐겨

상점 문닫고 ,공장 휴가

(서울25일=연합)음력설의 법정공휴일제정이 실현되지 못했으나 대부분의한국인에게 구정은 아직도 큰 명절로 남아있다.

서울 중심가의 대부분상점들은 이날 문을 닫았으며 기차역과 버스터미날은 우리고유의 한복을 입고 시골 조상의 묘에 성묘하러 가는 인파로 발디딜틈이없이 혼잡했다 구정 하루전인 24일 서울역을 거쳐나간 구정 귀성객은 약7만명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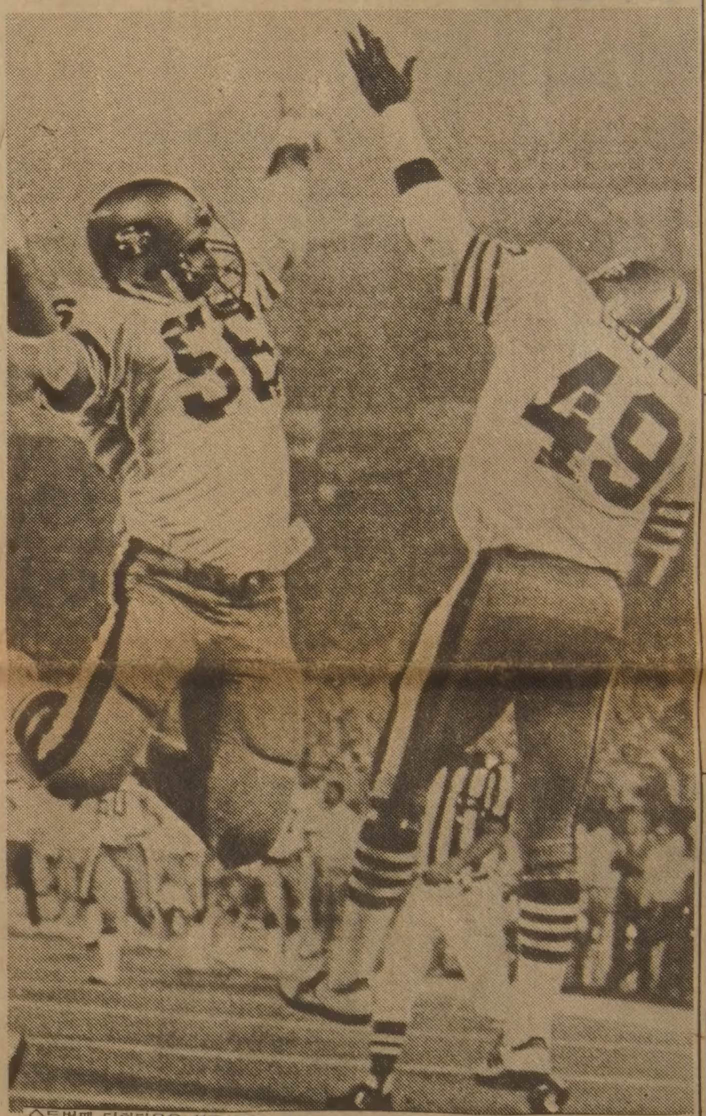
서울 변두리에 소재한 수출산업공단의 대부분의 회사들은 근로자들에게 보너스와 함께 3~4일간의 휴가를 주었다.

구정인 일의 날씨는 예년보다 맑고 따뜻한 날씨로 명절의 분위기를 더한층 고조시켰다.

최근 몇년동안 음력설을 법정공휴일로 제정하자는 여론이 높았으나 정부는 일년에 이중과세는 낭비라고 계속 음력설 공휴일 제정안을 기각했었다.

우방의 북한승인반대 해외공관장에 다짐.

(서울 22일=연합) 해외공관장 연례회의 이틀째인 21일 노신영외무부장관은 아시아, 유럽 및 북남미 주재대사 36명과 총영사들에게 한국정부는 북한의 동맹국들이 남한을 승인하지 않는한 남한의 우방및 동맹국들의 북한승인에 대해 반대한다는 방침을 주재국 정부에 강력히 전할 것을 촉구했다.



◇두번째 터치다운을 성공시키고 환희하는 얼·구퍼(No. 49)와 프레드·킬리안 . 샌프란시스코 49er's는 신시내티·벵골스를 26 : 21로 격파하고 제16회 슈퍼볼 패권을 잡았다. (관련기사2면)

토론토·심포니 공연계획

정경화·정명훈등과 협연

토론토 심포니(TS)의상임지휘자이자 뮤직 디렉터인 앤드류·데이비스는 21일 금년 9월20일 시작되는 82·83년 시즌의 TS 연주계획을 발표, 한국의 정경화(바이올린), 정명훈(지휘)을 비롯, 이작·펄만, 요요마(첼로), 에후디·메뉴힌등 세계적 대가와 협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경화·정명훈과의 협연날짜및 프로그램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새로 건립된 로이·톰슨·홀(뉴 메씨홀)에서 개최될 새 시즌공연을 위한 협연자중에는 세이지·오자와(객원지휘), 이마뉴엘·액스(피아노), 핑커스·주커만(바이올린)등도 포함돼 있으며, 시즌중 총 백여회 연주한다.

시리즈 정기애청자 티켓은 2월중, 1회 연주회 티켓판매는 9월에 시작된다.

시즌중 프로그램및 공연시일 티켓 판매등에 관한 사항은 전화 363-0374나 The Toronto Symphony 215 Victoria St. Toronto, Ont. M5B 1V1 로 연락하면 된다.

◇정명훈씨의 지휘모습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53 BLOOR ST. W(한국관

캐 나 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8052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536~1692
R)245~3539
454 BLOOR ST. W.
TORONTO. O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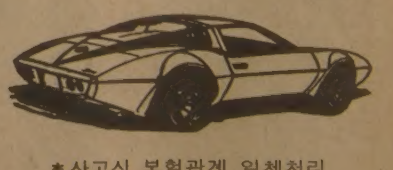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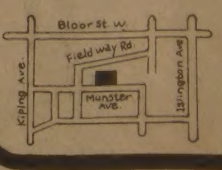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南國酒家
SOUTH CHINATOWN RESTAURANT
* 전통적인 칸토니스 중국음식
* 해산물(게)
* 팔진두부
* 각종국수
* 천엽
* 뱅쿠엘 써비스
OPEN HOUR.
월~목 11 : 30~11 : 00 P.M
금 11 : 30~2 : 00 A.M
토 1 : 00P.M~2 : 00A.M
일 1 : 00P.M~10 : 00P.M
주소 : 131 A DUNDAS W.
(던다스×유니버시티)
전화 : 977-3452

중앙 동창회
구정 파티
보고싶은 중앙동창회원 여러분! 구정을 맞이하여 정기총회겸 구정 파티를 갖고자 하오니 부부동반 하시어 전원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일 시 : 1982년1월30일(토)밤10시
장 소 : 한 국 관
연락처 : 박홍일 651-8511
중앙동창회장
김 대 일

MUTUAL LIFE
금번 Mutual Life에서 일하게 된 박시조입니다
Mutual Life보험회사는 카나다에서 individual life부분으로는 가장 많은 보험가입자를 흡수한 상호보험회사로서 110년 이상의 오랜 전통을 가진 카나다자본의 굴지의 대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Mutual Life는 바로 보험가입자 여러분의 회사입니다 보험가입자 모두 같은 비율로 이익을 분배받으며 상호보험만이 갖는 특수한 장점들은 교민여러분의 미래의 설계에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교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면서 인사를 대신 드립니다
박 시 조 올림
취급보험 :
● 생명보험 ● 상해보험
● 은퇴보험 ● 구룹보험
● BUSINESS LIFE보험
● R. R. S. P. (세금공제 은퇴저축)
● INCOME EVERAGING ANNUITY
주 소 :
515 CONSUMERS RD. SUITE 305
WILLOWDALE, ONT. M2J 4T5
전 화 :
494-3800(B), 481-8835(R)

L&K AUTO BODY
완전바디와 완전정비
완벽한 기술과 친절한 써비스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완전차체수리 * 페인팅
* 사고차량 토잉알선
346 Munster Ave. Toronto


오 세 호
(B)231-6951
(R)742-5406

2ND CLASS MAIL NO. 5248.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SUPER BOWL XVI

슈퍼보울 샌프란시스코로

49er's의 일방적 승리 26 : 21

샌프란시스코의 쿼터백 죠·몬타나가 뒹구루고 있다. 그러나 그는 NFL최고의 영광인 MVP와 슈퍼보울 링을 차지했다.

(폰티악－디트로이트)죠·몬타나의 49er's는 26:21로 신시내티·벵골스를 극적으로 물리치고, 최초로 제16회 슈퍼보울패권을 잡았다.

이날의 승리는 전적으로 미국프로훗볼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된 샌프란시스코 49er's의 쿼터 백 죠·몬타나의 수훈. 한개의 터치다운을 스스로 성공시켰고, 드라마틱한 패싱게임을 연출시켰다.

몬타나외에 키커 레이·웨칭의 공훈도 샌프란시스코 승리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 4번의 필드·골 챈스를 전부 성공시켰고, 땅볼을 날려 벵갈스의 실수를 유발시켰다.

슈퍼보울사상 최초로 북부 디트로이트 폰티악에서 열린 이날 경기에는81,270명의 관중들의 함성이 실버돔(실내경기장)을 뒤덮어 버렸다.

저의 실수를 안하기로 유명한 벵골스의 쿼터백 켄·앤더슨은 두번의 인터셉숀(상대방에게 볼을 빼앗김)을 당했고, 벵골스는 4번의 Turn-over를 기록, 이것이 바로 샌프란시스코의 20점 득점과 연결됐다.

전반전을 20：0으로 리드당한채 후반에 들어 간 벵갈스는 만회의 기회를가졌으나 49er's의 타이트한 디펜스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번의 터치다운을 성공, 20：7로 따라 잡은 뒤 두번째 기회를 얻은 벵갈스는 49er's 진영 깊숙이 1야드 전방까지 전진했다. 3번의 기회를 갖고 터치다운을 시도했으나 49er's의 수비벽은 너무 두꺼웠다.

게임후 패전감독 벵골스의 포레스트·그렉은 "전반전의 20점은 너무 부담이 컸다. 우리팀은 이 점수이상의 챈스가 있었는데··" 하고 말끝을 흐렸다.

샌프란시스코의 승리로 약 4개월의 전경기 일정을 끝낸 NFL(미국훗볼리그)은 49er's의 쿼터백 죠·몬타나를 NFL최우수 선수(MVP)로 뽑았다.

노틀담대학 출신의 몬타나는 프로경력 3년만에 첫번째 슈퍼보울 반지를 차게 됐다.

감독 빌·월스는 "80년대는 몬타나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는 모든면에서 여지껏 유명했던 어느 쿼터백보다 우수하다"고 평했다.

샌프란시스코를 지난 16번의 경기에서 15승을 기록케한 이날의 승리감독 빌·월스는 시즌초에는 바보감독 소리를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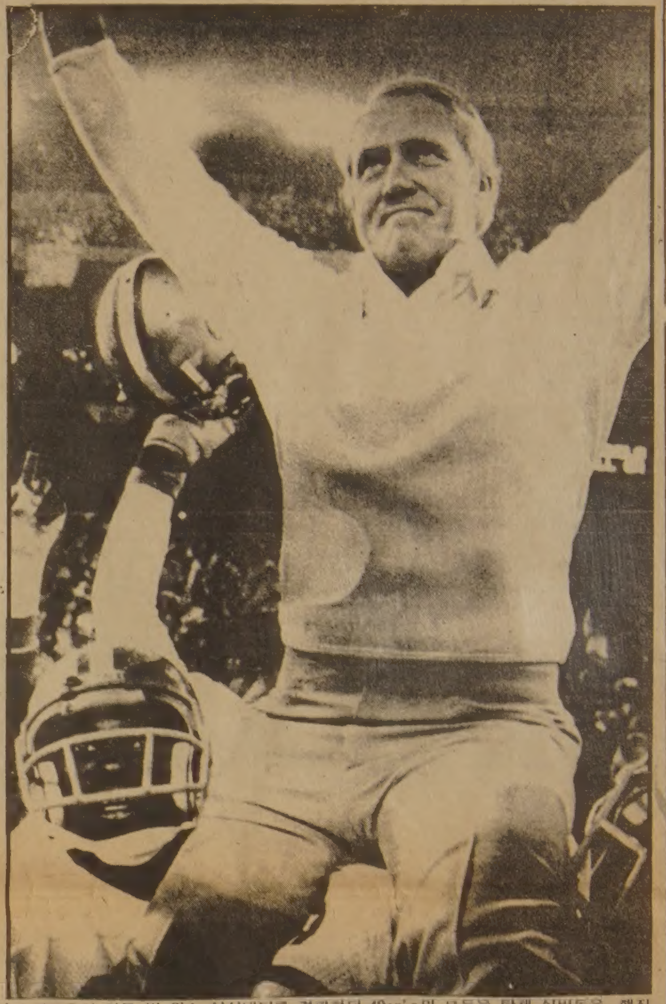
월스는 시즌초에 토론토·아고르넛에서도 번번치못했던 드와잇·힉스를 비롯, 3명의 신인들은 스타팅 라인엎에 세웠다. 모든 사람들은 샌프란시스코의 우승은 말도 안된다면서 월스의 이같은 행위는 자살이나 마찬가지라고 혹평했었다.

이제 사람들은 월스 감독이 천재이고, 힉스는 스타라고 칭한다.

이번 제16회 슈퍼볼은일본의 NHK를 비롯, 전세계 23개국에 동시중계, 약10억의 인구가 시청했다.

입장료 수입은 약 4천만 달러, TV중계료 약 6천만 달러에 달해, 경기장 수입만도 1억달러에 달한다.

경기가 끝난 후 로날드·리간 미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의 빌·월스 감독에게 전화를 걸고 "우리 캘리포니아 사람들은(리건과 낸시의 고향) 그대와 그대의 팀 전원에게 모든 영광을 돌린다."고 축하했다.



◇수퍼보울의 감독 빌·위스. 신시내티를 격파한뒤 49er's의 무등을 탄채 실버돔을 행진하고있다.

〈시〉

나 무

김 인(문협회원)

나이에 따라
없어져 간
속으로만 쌓여버린
표현도,

치솟으며 불붙던
사그라져 버린 그 야망도
입술로 자긋이 눌러버린,

망설이며 애태우며
차곡히 묻어버린
파랗던 연정도,

한번만 꼭 껴안아 주면
거미줄같이 엉클어진 숲속을 지나
뿌우옇게 헤엄치던 안개를 걷고
이식한 메마름도 벗겨 버리고

보일듯한 새 순을
올려서 뻗쳐서
네번째 륜을 만들 수 있답니다.

액션영화 방불, 날치기 추격전

당하고만 있어선 안된다

교포 정문기씨 "잡아야겠다는 일념에···"

필리핀청년 귀욘군"동양인 얕봄에 분노느껴"

날치기추격전이 벌어진 19일 하오4시30분께 올림픽마켓 부근에는 『날치기를 잡느냐, 놓치느냐』를 구경하기 위해 모여든 교포들이 손에 땀을 쥐어 영화활영을 방불케했다. 날치기를 잡기 위해 끝까지 추격한 두 사람은 필리핀계의 올리버귀욘군(18세)과 교포 정문기씨.

미국속에서 살아가는 동양계 이민들은 언제나 미국범죄자로 부터 피해만 당하고 눌려 지내온 실정이었다.

어떤 때는 교포여인이 백주에 코리아타운 길한복판서 피해를 당하는 광경을 보고도 위험이 두려워 고개를 돌리는 교포들까지도 있었다.

이번 범인체포에 공을 세운 교포 정문기씨는 마칭 올림픽불러버드를 지나다 김여인의 핸드백을 강탈하여 도주하는 흑인을 발견, 차를 우회전해 범인을 쫓았다.

이때는준프리웨이격인올림픽불러버드가 러시아워로 차들이 붐비는 속에 위험을 무릅쓴 회전이었다.

『무슨 정신으로 차를 돌렸는지 모르겠다』면서 『다만 범인을 추적해야겠다는 마음만이 불끈 솟았다』고 정씨는 말했다.

범인은 백을 젖머지고 대기하고 있던 공범들의 자동차에 타고 킹스리드라이브 남쪽으로 도주하는 것을 목격하고 계속 쫓은 정씨는 이들이 12가까지 갔다가 차를 돌려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내려오는 바람에 『내차를 돌릴 수 없어 그대로 후진으로 정신없이 몰았다』면서 『정말 아찔한 순간들이었다』고 되새겼다.

『언제나 교포들이 당하고만 있는 기사를 읽을 때마다 분노를 느꼈다』면서 『제가 한 행동은 당연한 일일뿐 입니다』라고 겸손해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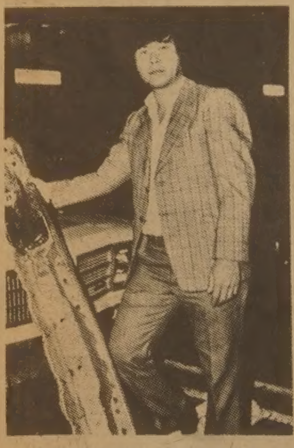
한편 김여인의 백을 흑인이 빼앗는 장면을 다른편에서 목격한 필리핀계소년 귀욘(18세)군도 범인차를 추적해 VIP 플라자 근처 아드모어 애비뉴와 11가 중간 지점에서 범인차 카프리스의 전면 왼쪽부분을 들이받고 도주를 막아 체포를 도왔다.

목숨을 건 충돌로 귀욘군의 포드트럭(넘버 320VMO)의 본네트가 튀어오르는등 차체파손을 가져왔다.

귀욘군과 옆자리에 앉았던 친구 마크·모스(19, Mark Moss)군은 뛰어내려 용의자 4명을 잡으려고 실랑이를 벌였는데 용의자 1명은 모스군의 얼굴을 할퀴면서 도망쳤다.

『흑인범죄자들이 우리동양인들을 얕보는 것이 언제나 마음속으로 분노해왔다』고 말한 귀욘군은 『언젠가 한번은 우리 스스로 잡아야 하겠다는 결심을 했었다』고 말했다.

(LA지사)



▲자동차범퍼를 파손당하면서 까지 범인을 추적 공로를 세운 정문기씨가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고 강조했다.

▲범인체포에 수훈을세운 귀욘(오른쪽)군이 친구 모스(왼쪽)군과 포즈를 취하면서 『차부서진 것은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번영회 임원조직 부회장에 변의섭

지난 15일 선출된 코리아타운번영회의 신임회장단(회장 장순채)은 21일아래와 같이 임원을 구성했다. 회장단과 임원진은 곧 새해업무를 발표할 예정이다.

회장：장순채
부회장：변의섭
총무：유지원섭외：원재훈
기획：장추신 사회：김용섭
체육, 문화：송관현, 사회봉사：이건영, 부녀부：이향련, 이옥순(차장)
고문：함병섭
자문위원：이영현(위원장) 김영규, 성낙윤, 송의섭, 이인덕, 박주삼
소비자대책보호부장：강찬영
부동산투자위원장：이대환
감사：최태권, 석창근

사이언스센터 쥬니어클럽 조직

온타리오 싸이언스센터(과학센터)는 4.5세 어린이들로 구성된 쥬니어·사이언스 클럽을 새로 조직한다.

2월12일부터 매주금요일 하오2시부터 3시. 혹은 토요일아침 10시부터11시 까지 5회 모임 쥬니어클럽에서는 인체 감각기관. 음향. 영양과 음식. 식물과 당신등의 제목으로 다채로운 학습을 갖는다.

온타리오 사이언스 센터는 해당연령 어린이들이관심을 갖는 제목을놓고 연령별로 학습하는 프로를갖고있다.

등록 혹은 문의는：전화 429－4100 Ext. 116. 117

교민동정

◆변의섭(블루어 하드웨어경영)구정(25일)을 맞아노부모님을 뵈우러 28일 한국을 방문한다.

2주예정의 이번 방문은6년만에 처음. 그동안 총무일을 맡았던 코리아타운번영회는 지난 15일 변씨를 부회장으로 선출했다.

◆송의섭(쌍방울 메리야스 대표)＝얼마전 한국서 직수입한 메리야스 속내의를 대량입하. 가게는 연지 8개월이 되었으나, 물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찾아오는 손님들께 죄송했으나, 이제는 25여종의 다양한 상품으로 손님들께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케 되었다고. 내달께 또다른 종류의 메리야스가 추가입하된다. 전화는 532－5394.

한인회 총회 낙수 혹한 마다한 맹렬여성도

●영하20도가 넘는 강추위를 무릅쓰고 총회에 나온 회원들이야 말로 한인중의 한인. 회관이 들어서 있는 20번지 모빌드라이브의 터가 나쁜지, 도대체 사람들이 안모이는 것이 특징. 지난 연말 각종파티에 뻔질나게 얼굴을 내밀던 한인사회 각단체장들도 이날은 종내 무소식.

한인회 홍보가 부족한지? 아니면 한인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 소양이 결여됐음인지?

●이날 총회에는 20대의아가씨들로부터 80 고령의노인들도 나왔으나 5 시간의 장시간회의가 지루해 반은 돌아가고 끝까지 남은 사람들은 50여명 밖에 안됐다.

이날 참석한 한 교포는 "무슨 결의가돼도 불참한 교포들중에 반대자가 많은 것이다"고.

●한인회관 이전에 관한설문을 띄웠다는데, 한인회장은 "각단체장등 500여 교포에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중요인사들의 의견은다 받아보았다"고, 이번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방법을 채택하지는 않은 것같다고 일부 교포들은주장.

●동기야 어떻든 과정이야 어찌됐든 한인회관 이전문제는 시간문제. 장소가 불편하다는데 우선 이전의명분론은 충분하다는게 중론. 공청회, 총회, 여론조사, 영사관 승인—모든 절차는끝이 났다.

이제 장소를 선정 하고 회관의 규모등을 결정하는 문제만 남았다.

82～83 회계년도 한인회 총회는 오는 11월에 한인회장선거를 위한 임시총회를 갖고, 내년초 신임회장주재 정기총회가 있을 예정. 기대를 하고 볼일.

결의문

1. 우리는 우리의 염원인 남북통일을 위하여 전두환 대통령께서 1월22일에 남북통일헌법제정. 장관급 상주연락대표부 상호설치. 순회회담개최등을 포함한 건설적인 제안을 한데 대해 이를 전폭 지지한다.
2. 우리는 전대통령의 상기제의를 계기로하여 통일기운 조성을 위하여 남북이 군비경쟁과 군사대치를 해소하고 상호내정에 간섭치 않으며. 남북이 상호신뢰를 증진할것을 호소한다.
3. 우리는 전두환 대통령의 1월22일 대북제의를 김일성 북한당국이 하루속히 수락할것을 촉구한다.

※토론토 한인회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

1982년1월23일

토론토 한인회

한국인의 도매상

한인연합상사

"소문없이 싸게팔며 봉사하는 도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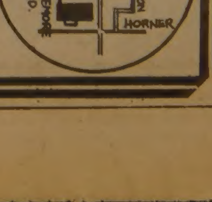
— CASH & CARRY 에 한함 —

* 하키카드 입하
* GLAD-GARBAGE BAG(24×10) $35.59
* 초코렛(오·헨리. 체리·브랏썸등) $9.49
* DARE 캔디(캔디 백)12PK $9.99
* LEAF BALL껌 1FREE+10BOX
* PEPPERETTES $14.99

한 인 연 합 상 사

251－6578

U.K.L. CASH & CARRY
27 RANGEMORE DR. TOR.



예술의 향기 ⑧

"피사의 탑을 찾아서"

유회자 (음악박사)

피스토이아에 온지,어느새 1주일이 되는가 보다.일요일인 오늘 아침엔 성 바톨로뮤성당에서 16세기에 행하였던 것과 똑같은 식으로 미사를 보는 날이다. 그당시에 쓰여지던 그레고리안성가와 16세기에 이름을 날리던 올가니스트이며 작곡가인 메롤로가 작곡한 올간음악을 연주하며 피스토이아에서 특별히 뽑혀오신 신부님의 인도하에 1시간50분에 걸쳐 노래와 음악으로 가득찬 미사를 드렸다.

신교에서는 이 모든 식과 절차가 불필요한 것으로 느낄 수도 있겠으나 일거일동의 모든 절차가 정성과 진실로 행하여졌을때 이루어지는 정중한 분위기, 아름다운 음악과 신비로운 향냄새등 모두가 예배를 훨씬 엄숙하고 뜻깊게 이끄는 듯하였다.

예배가 끝난 후 이 아카데미를 총지휘하는 움베르토·피네스키씨와 안네마리 수녀와 점심을 하면서 오늘 오후는 이곳에서 별로 멀지 않은 피사의 탑을 구경하러 가기로 합의를 보았다. 피네스키씨가 기차시간이 저녁 음악회에 대비하여 돌아오기에 잘 맞지 않을 테니 자기차로 데려다 주겠노라 하고 제의를 해오신다. 이분은 이곳 음악학교의 교장일 뿐 아니라, 올간연주가요, 이태리 올간음악의 연구가로, 또 이 아카데미의 창시자로 매우 바쁘고도 박력있는 생활을 하는 분이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이분은또한 신부이기도 하다고 한다.

아뭏든 이런 귀하신 분이지만 작달막한 키에 아주 서민적이고, 털털한 분이라서 이 아카데미를 찾아온 60여 학생들에게 모두 따뜻한 친절을 베푸신다.

감사한 마음으로 복스왜곤차로 피사를 향해 떠났다. 좁은 시골길, 옆에 산재해 있는 작은 마을들, 과히 높지 않은 산들, 꼭 한국의 산천을 연상케 하는 시골풍경들이다. 이태리도 19세기 중엽에야 한 나라로 통일됐고, 그전에는 각도가 하나의 왕국처럼 되어 있어서 각도시간에도 치열한 전쟁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 중간에 지난 루카라는 도시는 아직도 13세기에 쌓아놓은 성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인다. 저 성 위는 자동차 한대가 지날 정도로 넓다고 한다. 성 아래로는 지금은 초원이지만 옛날에는 물이 있어서 이 도시를 보호했노라 한다.

또 조금 지나니 콜라도라는 마을이 나오는데, 이 마을은 전세계의 어린이들이 애독하는 <피노키오>의 저자가 태어난 곳이라고 한다.

이 마을에는 또한가지유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꽃정원이라고 한다. 많은 여행자들이 방문하여 이 정원을 구경한다고 한다. 우리도 시간이 많지 않아 정원과 그 가운데 있는 폭포수를 카메라에 담은 뒤 피사를 향하여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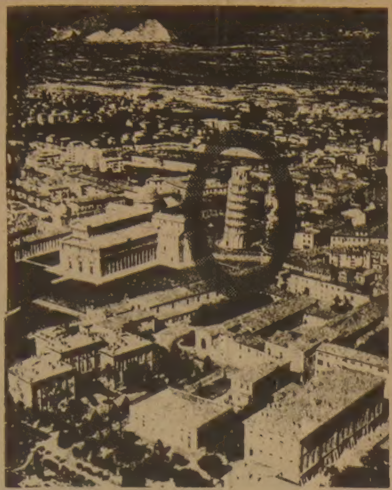
피사는 이태리 서부해안에 있는 항구로서 도시 중앙에 아름다운 강을 끼고 발달된 도시이다. 중세기때는 이태리 유수의 상업도시로서 그 부와 군사의 힘을 세계에 떨쳤던 도시라고 한다. 도시에 첫 들어서니 피스토이아와는 딴판으로 우아하고 예쁜 집들이 눈에 뜨인다. 말하자면 피스토이아보다는 훨씬 부자도시였다는 것이다.

멀찌감치 차를 세워놓고 걸어가노라니 옆으로 막 넘어질 듯한 피사탑이 보이기 시작한다.

「아하 저 탑이 유명한 "기대는 탑"이라는 것이로구나! 어려서 세계의 신기한 것중의 하나로 배워왔던 이것을 실지로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니!」

이 탑은 생각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탑이었다 서울 파고다공원의탑보다 아마 10여배는 더 크리라.

높이가 북쪽편으로는 55.22미터이고, 남쪽편으로는 54.52미터이니 70cm나 한쪽으로 기울어 졌다는 이야기다 이것은 눈으로 보아도 약간 기울어진것인아니고 상당히 많은 경사를 보이고 있었다 아직도 매년 1mm씩 기울어지고 있다니 1173년에 만들기 시작한 이탑이 1000의 생일이 되는 2173년에는 88cm나기울어지게 된다는 이야기다 아슈아슈한 느낌이 든다.



◇역사의도시 피사의 전경. 피사의 탑이 약간 기울어진채 서있다.(점선부분)

이탑이 설립된 목적은그 앞에 지어진 큰 성당의 종탑으로 세워진 것이다 이성당은 전연 생각하지못하고왔는데.그 크기와 아름다움이.또 그속에 담겨진 많은 예술작품들이 지금까지 보아온 어느성당보다도 훌륭한 것이었다.

피사의 도시가 그 부를 떨칠때 피사의 군인들을 돌보아준 감사로 최대의 정성을들여 지은 성당이니짐작이 갈만하다.성당중앙에는 큰 램프가 천정에서부터 내려왔는데.갈릴레오가 이 램프의 움직임을 주시하다가 추운동의 원칙을 발견하였다고 하여"갈릴레오 램프"로 알려지고 있다고한다.

성당은 전체가 흰대리석으로 지어졌고. 안에는 몇세기를 통하여 수많은 조각가와 미술가들이 정성들여 만든 조각품들이 꽉 차있었다.이 작품들은 유명한 피사노건축 조각양식의 최대절정을 이루 하나의본보기가 되고있는 것이다 성경의 인물과 성경의 이야기가 주제가 되고있는이 작품들은 거의가 대리석. 또는 동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표면이 섬세하고 우아하면서도 힘이 넘쳐흐르고 있어.한참 들여다보고 있노라면.나를 잊어버리고. 어느새 무아의 지경에 빠져버리고 마는 느낌이다. 훌로렌스의 성당이 그 크기와 웅장함을 과시한 것이라면 이 피사의 성당은 온통 금장식으로 꾸며진천정으로부터 벽의 구석구석까지 예술품의 아름다운 향기로 성당전체가 승화될 것같은 인상을 남기어다.

<장편연재소설>

영원의 방랑객 ④

첫 부 임(고삿갓)

고마태오(종옥 : 토론토한인천주교신부)

"물론 주님께 이 한몸을 바친 신부입니다. 전인류의 구세주이신 주님을 위해 저는 민족성과 정치성을 초월해 인간이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를 위해 일해야 할 신부입니다. 그러나 저는 먼저 한국사람입니다. 저는 4천만의 한국사람과 함께 운명을 같이해야할 한국사람입니다. 저개인의 인간적인 원한은그것이 제아무리 클지라도저는 그것을 잊을 수 있고, 또 용서해줄 수 있읍니다. 그런데 민족적 원한만은잊을 수 없으며, 또 저의 조국의 명예와 동족의 체면과 긍지만은 추호도 손상시킬 수 없읍니다. 관구장신부님, 제 입장과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신부님,당신의 그러한 애국심과 동족애에경의를 드리오마는 나는 레제 추기경의 요청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소."

주님의 뜻이라는 관구장 신부의 말에 나는 말문이 막혀버렸다. 주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신부가 된 나에게 있어 주님의 뜻은바로 장상에게 순명하는 것이었다. 우리 신부들은 사제로 서품되는 날 장상에게 절대 순명할 것을 하느님께 맹세하는 것이다. 순명은 신부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태오 신부님, 순명하시오. 주님의 뜻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시오. 거듭 말하오마는 민족적 원한의 대상인 일본인들을 위한 당신의 사제적 사랑과 사목활동을 통해 주님께서는당신의 조국을 분명코 축복해 주실 것이오. 그리고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조국 밖에서 살아가야 할 고통과 또 동족을 위한 복음사업을 할 수 없는데서 갖게 되는 고독을 통해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제적 생활을 성화(聖化)시켜 주실 것이오. 나도 당신의조국을 위해 기도 바치겠소. 태오 신부님, 순명하시오.

롱도 관구장신부는 아까와는 달리 어버이 같은 인자한 모습과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그분은 나라는 한국인의 입장을 충분히이해하는 것같았다. 그리고 나에게 순명을 요구하시는 그분의 마음은 고통스러워하는 것같았다.

"네, 잘 알겠읍니다. 순명하겠읍니다, 관구장신부님.

"감사하오, 태오 신부님 수도자에게 있어서 순명은 크나큰 덕이오. 그리고 순명은 또한 주님의 은혜요.

"명심하겠읍니다. 관구장신부님."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리시어죽기까지 성부이신 하느님께 순명하시지 않았소. 제쎄마니 동산에서 잡히시기 직전에 하신 주님의 기도「아버지, 아버지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면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뜻대로 마시고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마태 26장 39절).이것이 우리들 수도자의 생명이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순명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구속사업을 계속해 나갈 거요."

"명심하겠읍니다, 관구장 신부님."

나는 더 이상 "명심하겠다는 말"이외 다른 말씀을 드릴 것이 없었다. 순명이 수도자의 생명과 같은 것임을 나도 잘 알고 있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는 장상에게 순명할 것을 항상 마음 다짐하고 있던 터였다.

"그럼 옷따와수련원으로 돌아가시오. 그리고 내년 부활절 무렵 공부가 끝나는대로 발령할 것이니 그리 알고 있소."

"네, 그렇게 하겠읍니다."

이것이 내가 신부가 된 이후 처음으로 겪은 시련이었다. 수도자로서의 순명과 한국인으로서의 민족감정이 대립된 일종의 갈등을 나는 마음안에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서양인들만의 수도원에서 일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 고 생각했다.

1965년 어느날, 당시 캐나다 집권당인' 자유당정부가 옷따와지역에 살고있는 각민족 대표들을 초청해 리셉션을 베풀어준 일이 있었다. 나도 한국인 대표자격으로 초대되었다. 거기서 나는 우연히 당시 이민장관인 존·마아성 장관을 만났고, 그분과 잠시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었다.

그때 그분은 캐나다정부가 한국인에게 이민을 개방할 것이라고 나에게 귀뜸해 줬다.

"한국인에게 이민 개방"이라는 그분의 말은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조국밖에서 일본인들을 위해 일하게 될 바에는 차라리 동족을 위한 이민사목이나 해보자는 강한 충동을 받았다.

그 무렵 조국정부는 남미에 많은 이민을 보내고 있을 때였다. 나는 신문과 잡지등을 통해 남미이민들의 생활을 단편적이나마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까지 나는 단 한번도 내가해외에서 이민사목을 하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민사목에 대한 관심과 의욕이 내마음에 끓어오르고 있었다.

(계 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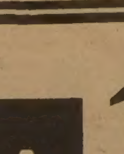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선금)연 $99 월$9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416) 533-2361~4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三國志 (299)

글·高羽榮·그림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
쌍방울 메리야스

여9부아스마

남안다 여아용안다

⊙속내의 대량입하 했읍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
⊙각종 메리야스(남녀 팬티, 런닝샤쓰등)

주소 :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송 의 섭

여7부

아스마 남안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韓日頂上회담 5월開催추진

外相회담서 經協總額타결 방침

韓日양국은 오는5월 서울에서 全斗煥 대통령과 스즈끼(鈴木善幸) 일본수상간의 頂上회담을 개최한다는 목표아래 2월 東京에서 열릴 제2차高位實務者예비회담에서 60억달러의 經協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끝내고 3월하순께 양국外相회담에서 일괄타결키로 방침을 세운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은 21일『지난주 서울에서 열린 예비회담에서 韓日양국은 60억달러經協의 조속한 타결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히고『이를 위해 2월에 추가예비회담, 3월에 外相회담, 5월에 頂上회담을 갖는등 양국간의 經協타결을위한 적극적인 외교교섭이 전개될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그동안 異見을 보여온 經協타결방법에대해서도 兩國이 外相회담을통해 總額을 우선 타결하되 이를 위한 충분한 검토절차를 거치기로 합의했기때문에 앞으로의 교섭에는 별다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주 서울에서 열린 양국실무자예비회담에서 일본측에 上下水道사업등 11개프로젝트와 商品借款내용을 제시한것으로 알려졌는데 외무부소식통은『11개 프로젝트와 상품차관을 합하면 經協요청금액은 약60억달러가된다』면서『이같은 프로젝트제시는 일본측이 주장하는 프로젝트심사를 위한것이 아니라 일본이 經協규모를 정치적으로 일괄타결하기 위한 자료로 제공된것』이라고 덧붙였다.

李載濬韓日의원연맹회장도 韓日經協문제와관련 20일 연맹간부들에게『60억달러經協문제가 6월안에 결론이 날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스트리아 外相 한국등 巡訪길에

【빈20日AP=聯】빌리발트·파르 오스트리아외상이 20일 한국을 비롯한 極東3개국순방차 출국했다.

파르외상은 10일간에 걸친 極東순방중싱가포르·필리핀·한국에 들러 쌍무여증진방안을 토의한다.

"北傀 全面戰도발 警戒를"

全대통령, 對間諜회의 諭示

全斗煥 대통령은 21일 武力赤化통일전략을 포기하지 않고있는 北韓은 특히 금년봄 金日成의 70회생일을 전쟁준비강화의 계기로삼아 전면적인 전쟁수행능력을 점검, 보완하고 있다고 지적, 따라서 前後方의 각급防衛部署는 감시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不純세력에 대한 探知활동을 강화하는등 물샐틈없는 고도의 경계태세를 계속유지해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상오 중앙청회의실에서 열린 對間諜對策중앙회의에 참석, 諭示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주민들의 신고의식강화와 조직확대 ▲지역단위 공동방위체제확립 ▲內陸작전체제강화등을 당부했다. 【사진】

全대통령은 특히『後方침투와 사회교란을 노리는 北韓공산집단의 책동을 분쇄하기위해서는 국민모두가 對共要員이라는 투철한 勝共정신으로 무장해 한명의 공산諜者도 이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각종 신고조직을 확대해 나가야하겠다』고 말하고『내고장, 내직장은 내가 지킨다는 향토방위의식을 한층 드높여 각지역단위 공동방위체제를 발전시키는 한편 有事時에 공동대처할수 있도록 각종지원및 협의기구를 통합, 一元化시켜야 하겠다』고 밝혔다.

全대통령은『敵은 우리의 脆弱지점을 엿보고있으며 기회만있으면 침투를 시도할것』이라고 분석하고『따라서 軍은 해안과 前方지역을 專擔방어하고 소수 무장共匪의 內陸지역침투는 경찰이소탕할수있도록 경찰의 작전수행능력을 보완해주기바란다』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또『北韓공산집단은 外部에 혼란을조성함으로써 族閥世襲체제구축에서 비롯된 내부적갈등을相殺하고자 수단방법을 가리지않는 對南공작을 시도할가능성마저 보이고있다』고 지적하고『北韓공산집단이 언제어떠한 형태의 도발과 攪亂책동을 기도해오더라도 우리는 이를 즉각 처부실수있는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첫 對間諜對策회의

정부는 21일상오10시 중앙청회의실에서 全斗煥 대통령주재로 올들어 첫대간첩대책중앙회의를 열고 당면과제를 협의했다.

대간첩대책본부(본부장 尹誠敏합참의장)가 주관한 이날회의에는 劉彰順총리서리, 각부처장관, 안전기획부장, 3군참모총장, 각시도지사와 전국치안및 예비군관계자들도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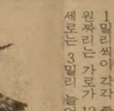
이날회의에서 강원도 原城郡예비군대대등 4개 예비군부대와 ▲전남방위협의회, 제707전경대대등이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표창을 받은 예비군부대는 다음과같다.

▲강원原城郡기동예비군대대 ▲경남山淸郡生草面 ▲전남麗水市南海化學 ▲경기加平郡北面

돈이 바뀐다

새紙幣 내년부터 5백원짜리銅錢 올下半期등장

◇실물과 똑같은크기의 새萬원券



◇새로나올 1千원券(上)과 5백원짜리동전。

紙質개선·크기줄여 流通편리하게

5백원券 銅錢으로

僞造식별쉽게…盲人用 點字표시도

새 돈이 나온다。지금 쓰고 있는 지폐가 모조리 바뀌어 크기가 작은 새 모양의 지폐가 내년부터 통용되고 올하반기부터는 5백원짜리 동전이 새로 나와 유통되기 시작한다。한국은행은 21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현행지폐를 모두 새 모양으로 바꾸고 5백원짜리 동전을 새로 발행하며 1백원、50원、10원、5원및 1원짜리 동전도 도안을 바꾸기로 했다。

돈모양을 바꾸기로 한것은 제5공화국 출범에 때를맞추어 새화폐를발행、쓰고 유통하는데 편리하도록 규격을줄이고 지폐의 품질을 개선하기위한것이라고 한국은행은 발표했다。새지폐는 사용수명이 길어질뿐아니라 특수장치를통해 위조지폐 식별능력 강화、기계감응장치주입、맹인용점자표시등이 가미돼 선진국화폐와 같은수준으로 품질이 높아지게 된다。

새지폐는 종류에 관계없이 세로길이가 모두 76밀리로 통일되고 가로길이는 1만원짜리가 1백61밀리、5천원짜리가 1백56밀리、1천원짜리가 1백51밀리로、5밀리씩 순차적으로 작아지게 돼있다。

지금쓰고있는 지폐와 비교하면▲1만원짜리는 가로 10밀리、세로 5밀리씩 ▲5천원짜리는 가로 11밀리 세로 1밀리씩이 각각 줄고▲1천원짜리는 가로가 12밀리줄고 세로는 3밀리 늘어난다。5백원짜리는 지폐가 없어지고 모두 동전으로 대체된다。

새로나오는 지폐의 도안은 현용지폐의 주된 소재인물은 그대로두되 인물을 보다크게 해서 시각적으로 모양이크게 보이게하고 색깔도 현재의 녹색、갈색、자색을 그대로 쓰면서 좀더 선명하게했다。또 밝게 벼루 투호등 부소재를써서 도안에 입체감이살도록했다。

5백원짜리 동전은 자동판매기의 대량보급등 고액동전 수요에 부응키위해 발행되는 것으로 현용1백원짜리보다 조금큰 지름26·5밀리의 크기로하며 소재는 백동、도안은 제5공화국의 제2도약을 상징하는『鶴의飛翔』으로했다。나머지동전들은 현재의 규격과 소재를 그대로쓰고 앞뒤문자와 숫자배열만 바꾸기로했다。

한국은행은 새로나오는 화폐들을 올하반기부터 현용화폐와함께 순차적으로 유통시키되 5백원짜리동전은 올하반기부터、나머지동전은 83년부터、새지폐는 83년 이후부터 발행키로 했다。

◇새 돈과 現用돈의비교

◇지폐 (단위：mm)

	現行 가로	現行 세로	新體系 가로	新體系 세로	比較 가로	比較 세로
10,000	171	81	161	76	△10	△5
5,000	167	77	156	76	△11	△1
1,000	163	73	151	76	△12	+3
500	159	69	(鑄貨代替)		—	—

◇鑄貨 (단위：mm)

	現行 지름	現行 도안	現行 소재	新體系 지름	新體系 도안	新體系 소재
500	—	—	—	26·50	학	백동
100	24·00	이순신	백동	같음		
50	21·60	벼이삭	양백			
10	22·86	다보탑	황동			
5	20·40	거북선	〃			
1	17·20	무궁화	알미늄			

全大統領 國政연설

오늘下午 임시國會서

제1백9회 임시국회가 22일하오 2시 개회된다。

국회는 이날하오 개회식에 이어 全斗煥 대통령의 새해 國政연설을듣고 23일하오 다시 본회의를 열어 劉彰順 국무총리 서리의 임명동의안과 高炳宰 국회사무총장 서리에 대한 임명승인안을 처리한후 의원직을 승계한 金裕祥의원(民正)의 의원宣誓를 받는다。

국회는 23일 본회의 散會직후 外務委를열어 全대통령의 國政연설내용을 뒷받침하기위한 결의안을 채택、23일의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는 당초 3월초로 예정했던 제1백10회 임시국회를 2월하순께로 앞당겨 열어 各黨대표의 기조연설과 對정부질문 및 작년 정기국회가 처리하지못한 법안등 기타 議案을 처리하게 될것으로 알려졌는데 李鍾贊 民正黨총무는 21일『제1백10회 임시 국회를 3월초에 열 구상이었으나 각정당간에 합의가 되면 2월말로 당길수도 있다』고 밝혔다。

農水産·文公委소집 民韓서 요구할방침

高在淸 民韓黨총무는 21일 쌀값下落과 대학入試제도의 문제점을 추궁하기 위해 제109회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農水産委와 文公委 소집을 民正黨측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와 관련、소관 상임위 간사들에게 民正黨측과 접촉을 벌이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社會漫評

하는수가 없으니…

잘 선 줄인지 잘못 선 줄인지…

초조한 大入수험생

◇제대로 잘선줄인지, 잘못선택한줄인지 수험생들은 불안하다。21일 전기대학예비 소집장에나온 대입수험생들은 학교당국이시달하는 주의사항보다 눈치 살피기에바빴다。수험생들은 자신들이 서있는줄이 어디까지 뻗쳐있는지헐새없이 살피는 눈치였고 22일이가운데서 얼마나 많은숫자가빠져나갈지궁금해하기도 했다。【21일하오漢陽大에서】

地平線

◎복잡한 얘기를 해야할 것 같다。자동차 한대에 붙는 세금과 공과금 얘기다。상공부 조사에 의하면 자동차 한대를 굴리는데 드는 세금과 공과금의 항목은 제조과정에서 5가지、구입할때 10가지、등록할때 11가지、유지단계에서 6가지나 된다。그중에는 지하철·상수도·도로등 공채만도 3가지나 들어있다。▼앞서의조사대로하면、소형차 포니는 세금을 내기전 기본가격이 2백64만원인데、출고가격은 3백85만원、이차를사서 등록을 마치는데까지는 4백19만원이든다。기본가격의 58·8%란 비용이 얹힌 것이다。게다가 안전·벨트등 필수 옵션이 있고、시트·커버다 뭐다해서、몇10만원을 따로써야 하니、그 비용까지 합쳐 도합4백58만원이 들더라는 계산도 나와있다。포니(조랑말)가 달리는지 세금이 구르는지 알수가 없다。▼복잡한 얘기는 또 있다。이번에는 공무원의 월급봉투 얘기다。작년 기준으로 근속20년이 넘는 3급공무원의 본봉은 6만6천원이다。여기 14만6천원의 직책급이 붙고、근속급이 붙고、가족수당이 붙고、조정수당이 붙고、더하여 정보비와 판공비가 따로 있다。게다가 연6백%의 정근수당과 보너스―。얼핏 갈피를 못잡게 복잡하여、듣기에 푸짐하지만、봉투속 알맹이는 생활급에도 못미친다。▼이렇게 복잡한 얘기가 한데 얽힌 것이 관용차의「손수運轉」이다。예산절감을 위해 1~3급 공무원이 핸들을 잡는다는 것은 좋으나、공무원봉급을 다 털어 넣어도 차값과 유지비를 감당할 길이 없다。고급공무원이 과실치사 피의자로 끌려다녀도 말이 아니다。그래서 갖가지 禮遇조치가 나올수 밖에 없는데、법을고쳐 교통사고처리의 特例를 둔 것이 그 하나、세금을 면해주고、보험금을 내주며、자동차유지비를 지급하자는 것도 그런 방안이다。▼이가운데、차량구입 때의 특별소비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세법개정안은 국무회의까지 올라가 보류됐다。그러더니 이번에는 공채매입을 면제하고 월30만원의「車輛手當」을 지급한다는 방안이 나왔다。누구나가 사는 공채를 공무원이라고 면제할 까닭을 알수가 없으나、급여봉투가 더 복잡해질것도 걱정된다。그렇게해서 세금안내는 급여를 늘리는 것은、판공비증액·정보비신설과 마찬가지로、국민보기 떳떳치 못하고、上薄下厚 구호에도 어긋난다。그럴바에야 차라리 차량유지비는 정부가 부담할만 못하다。그렇게 한뒤에도 예산절감효과가 있어야、「손수運轉」은 추진할만 할 것 같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신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 R. S. P
922-3111(B)
439-8885(R)

한국일보 소매처 지방으로 뻗쳐

◆아래 한국 식품점에서 본 한국일보를 판매합니다.◆

● 에드몬톤 :
L & K 동양식품
7729-85 ST. ☎ : 466-8917

● 캘가리 :
아리랑 캘가리식품
#11, 3012-17 AV. S. E.
☎ : 272-1818

■ 한국일보는 이민생활의 동반자.
■ 풍부한 생활정보는 발전의 촉진제.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4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977-9734

서울대학교동창회
신년파티및정기총회

1982년도 신년파티및 정기총회를 아래 요령으로 갖고저 하오니 동문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때 : 1982년1월30일(토)오후6시
곳 : Hotel Triumph(Keele St×401북쪽)
참가비 : 커플 : $50 싱글 : $30
※참가통고를 다음 준비위원이나 운영위원에게 해주시면 준비에 도움이 되겠읍니다.
배찬규 : 270-3353, 정우섭 : 270-2663
김동수 : 270-5515, 송경란 : 492-7710
이창수 : 1-579-3684(Whitby)

서울대학교 동창회
캐나다지부운영위원장
이 창 희

새로운
집을 장만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 한국안내광고
부동산 매매에서
찾아 보십시오.
광고문의 : 533~2361

對蘇「전략기술輸出규제」強化

코콤會議폐막 美제의에 유럽盟邦 동의

레이건의 「경제制裁 선언」 對應策으로

【파리20日UPI=聯合】 미국과유럽맹방들은 20일밤 파리에서 이틀간의 COCOM(對공산권수출통제조정위원회)회의를 폐막, 對蘇전략기술수출규제를 강화하자는 미국의 제의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선언했다.

이번 COCOM회의는 군사목적에 이용될수있는 서방기술의 對東歐圈 수출규제절차를 개정해 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논의하기위해 열렸었다. COCOM은 이날 폐막성명을 통해 『이회의의 목적은 수출통제방법을 세계정세、특히 중요전략기술 분야에 있어서의 변화에 적응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있었다』고 밝히고 이점에 있어서 COCOM은 만장일치의 합의를 보았다고 말했다.

蘇선「가스封鎖」가능성

西獨·佛·伊등 큰차질 예상

【본·파리20日聯合】 폴란드사태와 관련한 레이건대통령의 최근 對蘇·對폴란드경제제재조치는 소련산 천연가스의 對西歐공급계약의 이행을 지연시키거나 전면 봉쇄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본의 금융계소식통들이 20일 전했다。

소식통들은 만약 미국의 對蘇제재조치가 백지화 또는 완화되지 않을경우 시베리아·西歐間 가스管 건설계획이 지장을 받게될 것이며 이는 서독측에 심각한 결과를 안겨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독과 프랑스·이탈리아 3국은 소련으로부터 매년 4백억㎥의 시베리아産 천연가스를 구입하기 위해 소련과 총연장 5천5백km에 이르는 가스管건설계약을 이미 체결했거나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이와함께 서독은행들은 19일 시베리아·西歐間 가스管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소련에 빌려주려던 9억마르크(1억3천만달러)의 對蘇차관에 관한 최종결정을 연기했다고 프랑크푸르트의 소식통들이 이날 밝혔다。

이들 소식통들은 對蘇국제차관단에 참여중인 약25개서독은행들이 19일 프랑크푸르트에서 對蘇차관제공문제에 관한 회의를 개최했으나 아무런 합의점도찾지못한채 회의를 폐막했다고 전했다。

◇블랙박스…추락原因 규명 지난13일 추락한 美에어·플로리다 항공사소속 국내선여객기에 실려있던 비행기록상자(블랙박스)가 20일 잠수부들에 의해 포토맥江에서 인양되고있다. 추락사고의 원인은 이 블랙박스안에 들어있는 자료로 규명될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20日AP電送=聯合】

시리아 不發쿠데타

黨舍폭격 아사드殺害 기도

【다마스커스20日AP·AP=聯合】 일단의 시리아육군및 공군장교들이 전투기와 대포를 동원、하페즈·아사드 대통령의 현정부를 전복하려고 쿠데타를 기도했으나 사전에 발각돼 거사직전에 체포됐다고 아랍에미리트연합의 알·할리즈紙가 20일 보도했다。

佛、새國有化案 제출

議會에 보상규모도 25%增額

【파리20日AP·AP=聯合】 프랑스와·미테랑 대통령의 프랑스社會黨정부는 20일 국유화될 기업과 은행주주들에대한 보상규모를 25%정도 증액시킨 개정 국유화법안을 승인、이날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사회당정부는 2개월전의회에서 통과된 국유화법안이 지난16일 헌법위원회에 의해 거부되자 공산당출신 각료들과 사회당 좌파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상액상향조정을 골자로한 새로운 국유화법안을 마련했다。

파이로·베레고부와 엘리제宮대변인은 이날 각의가 끝난후 국유화될 기업주주들에게 지급될보상금이 지난80년 10월부터 81년3월사이의 가장높았던 주가를 기준으로하고 여기에 인플레14%를 고려해 모두25%가 증액될것이라고 말했다。

베레고부와대변인은 이같은 결정으로 5개대기업과 39개은행국유화를 위해 당초 3백50억프랑(60억달러)으로 추산되었던 보상금액이 60억프랑가량 늘어날것이라고 시사했다。

메아리

「暴走族」의 규제

색안경에 얼굴을 가린 가죽점퍼의 차림。난폭한 오토바이族 말론·브랜도가 무섭게 내닫는다。현실에 반항하는 청춘의 아웃사이더。영화「亂暴者」가 보여준「暴走族」의 심벌이다。

프랑스의 시인이며 감독인 장·콕토도 그의 自作영화「오르페」에서 청춘상을 오토바이로 상징했다。발명 1세기를 맞는 오토바이는 세계적으로 대중화 되었다。죽음을 무릅쓴 질주가 흔하게 벌어진다。

우리나라에서도 오토바이가 대중화되어가고 있다。국산도 1ℓ의 연료로 75km나 달릴수있어 교통수단만이 아니라 레저용으로 안성마춤이다。그러나 폭주와 소음은 큰 골칫거리다。

차도를 휩쓸듯 치닫는 일부오토바이族을 볼때 꼭 서커스를 보는 아슬아슬함을 느낀다。肝이 크게 속도감을 만끽하는 질주는 보는 사람에겐 간이 콩알만해질 만큼 전율감을 준다。

안전을 무시한 暴走族의 말썽을 한번 따져 보자。지금 도로사정으론 전용도로란 상상조차 못한다。차량의 홍수를 이룬 차도엔 오토바이의 過速이 허용될 여지가 없다。

그런데도 차선을 헤집고 공포의 운행을 서슴지 않는다。심지어 인도에 까지 뛰어드는 無法으로 행인을 불안케 만든다。일본산 6기통짜리는 시속 2백60km까지 낼수 있다고 한다。過速의 유혹이 바로 사고의 원인임을 알아야겠다。

요란한 폭발음은 심야와 새벽의 정적을 깨기가 일쑤다。안면방해는 도시공해다。소음은 도시인의 공적이고 사회악이다。그저「기분을 낸다」고 소음제어장치마저 떼어버려 폭음은 더요란하다。폭주족이 도시소음의 공범자로 등장한 것이다。

길의 굴곡이 심한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오토바이 사고율이 2배나 높다。79년 한해 오토바이사고는 9천4백여건、사망자는 4백62명이나 되었다。이사망률은 자동차사고의 3배 이상임이 드러났다。

게다가 무면허운전이 태반이다。교통부는 앞으로 배기량50cc이상의 오토바이도 신고를 하고 번호판을 달아야 운행할수 있게했다한다。사고와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

自律이 안통하면 무거운 他律을 자초할 뿐이다。오토바이族 일부의 暴走와 爆音은 철저히 규제받아야한다。작년 경산열차사고의 시발이 오토바이였음을 새삼 기억해본다。

韓國人요리사 入院

比機총격、다리등 銃傷 / 오끼나와 도착

【東京21日AP=聯合】 필리핀공군기로부터 공격을받았던 일본화물선 헤그호(5천3백7톤)가 사건7일만인 21일 일본 오끼나와(沖繩)의 나하(那覇)에 도착했다고 일본해상보안청(MSA)이 밝혔다。

필리핀 공군기의 기총사격으로 부상한 韓國人요리사는 도착즉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그는 다리와 어깨및 배에 총상을 입고있었으나 용태는 알려지지 않았다。

◇比機 공격때 부상입은 成哲煥씨 필리핀공군기의 공격을받은 일본화물선 헤그號의 한국인요리사 成哲煥씨가 사건당시 부상당한 몸을 부축받으면서 배에서 내려오고있다。이배는 21일 오끼나와에 입항했다。【나하(日)21日AP電送=聯合】

美는 軍國主義推進

蘇言論 레이건非難

【모스크바20日聯合·AP=聯合】 소련관영 언론들은 20일 레이건미국 대통령이 연두회견에서 소련과 폴란드에 대해 『잔인하고도 터무니없는 공격』을 했다고 주장하고 이는 미국이 폴란드위기를 틈타 세계에서 가장 난폭한 군국주의적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世界의社說

強硬路線등 크게 완화

●레이건의 外交政策 1년 ●워싱턴·포스트紙(美·21日字)

레이건은 지난1년동안 외교와 국방정책분야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왔다。레이건은 카터前행정부가 국가위신을 추락시켰고 국간안보를 위험한지경에 이르게 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레이건이 등장한지 1년이 흐른지금 그의 외교정책은 많이 완화되었다。

레이건의 초기의 교정책은 소련과 군축협상을 재개할 중요한 전략무기 생산결정등 강경노선을 고수했던 이만큼 실용적인 자세를 겸비하게 되었다。

미국국민들은 레이건의 정책전개에 신뢰감을 주기를 주저하고 있는것같다。

아직도 레이건보좌관들은 왜 레이건이 아주 사소한 문제에까지 정통할수없는가에 대해 국민을 납득시키려고 하고있다。어떤점에서 본다면 레이건은 그가 악평을 서슴치않았던 전임자보다 더 나을게 없는 지도자이다。

그러나 1년재임으로 그를 충분히 평가할수없다。현시점에서 그의 업적을 평가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比機의 기총소사 당연

●헤그호로부터 얻은 교훈 ●불리틴·투데이(필리핀·20日字)

필리핀공군이 지난주 민다나오 앞바다에서 일본의화물선 헤그호에 기총소사를 가한것은 정당하다。헤그호는 필리핀 반도들에게 불법 무기를 적재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은 수상쩍은 선박중 하나였다。

헤그호 사건이 제기한 문제는 군사행동이 옳았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수년동안 얼마나 많은 화물선들이 위장을 한채 빠져나가 정부를 무력으로 전복시키려는 자들에게 비밀무기를 하역해 주었느냐는 것이다。

카를로스·로물로외상은 지난18일 성명을 통해 헤그호는 헤그호측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도주하자 공군전투기 2대의 기총소사를 받았으며 1천만달러 상당의 무기와 폭발물을 싣고있다는 의심을 받고있었다고 지적했다。

공군과 해군은 헤그호에 대한 작전중 약간의 팀웍을 보여주긴 했으나 나포하지는 못했다。여기서 얻은 교훈은 필요하다면 필리핀군의 요격、수색및 격침방법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美商議건물에 爆彈

伊警"死傷者 없다"

【로마20日AP=聯合】 이탈리아 로마에있는 美상공회의소 건물 정문앞에서 20일 폭탄이 터져 건물이 크게 파손되었으나 사상자는 없었다고 경찰이 밝혔다。

이 폭발로 이 4층건물 정문앞에 큰 구덩이가 패이고 건물유리창이 박살이 났으나 이 건물3층에 자리잡고있는 美상공회의소는 업무가 끝난 뒤이어서 사상자는 없었다고 경찰은 말했다。

首相에 戒嚴항의 書翰

波主教團 緊急회의…教徒엔 특별教書

【바르샤바20日AP·UPI=聯合】 폴란드전국의 가톨릭주교들은 19일의 긴급주교단회의에서 국가정세를 논의한후 계엄통치에 대한 새로운 항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 공식서한을 폴란드 軍政지도자 보이체흐·야루젤스키에게보냈다고 관영PAP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요제프·글렘프대주교의주재로 열린 긴급주교단회의후 발표된 짤막한 성명은 공한발송사실만 밝히고 공한의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일부소식통들은 폴란드의 위기해소노력을 가속화시키기로 합의한 18일의 정부·교회회담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일련의 정책결정을 조속히 내리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있을 것이라고추측했다。

주교단회의성명은 야루젤스키에게 이같은 서한을보내는한편 오는2월2일자로 폴란드국민의 80%에이르는 가톨릭교도들에게 교서를 발표할것이라고밝혔는데 그 내용은 야루젤스키가 25일의 의회연설에서발표한 것으로 보이는 계엄규제완화조치와 정책노선의 내용에 따라 일부 수정될것으로 예상된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폴란드 가톨릭교회는 구랍13일의 계엄령선포와 자유노조활동정지이후 자유노조를 대신하여 그역할을크게 신장시켜왔다。

波勞組、共產黨과 타협용의

社會서 指導的機能 인정등

【코펜하겐20日聯合=聯合】 폴란드 자유노조는 폴란드사회에서의 共產黨의 지도적기능을 수락할 용의를 갖추고있다고 망명중인 자유노조의 한대변인이 20일 말했다。

자유노조 바르샤바지부 공보실 부실장이었던 스테판·트르친스키는 기자들에게 자유노조지도자들이 共產黨과 회담을열고 타협과 협력을 할 용의를 갖고있다고 말했으나 현군사정부와는 대화를 가질용의가 없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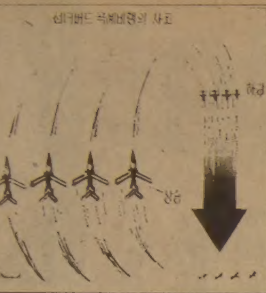
聯邦구성 豫備措置

리비아·알제리합의

【파리20日AP=聯合】 무아마르·가다피 리비아국가원수와 차들리·벤제디드알제리 대통령은 19일밤 알제에서열린 양국정상회담을통해 두나라의 연방구성에관한『중요한 예비조치』에 합의했다고 리비아관영 자나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제트機4대 모래밭 連鎖추락

美 곡예비행단 29年史上최악事故



美네바다사막에서 지난18일 곡예비행훈련중이던 선더버드(雷鳥)곡예비행대소속T38탈론제트연습기 4대가 동시추락한사고는 美공군의 곡예비행단창설 29년사상 최악의것으로 기록되고있다。이번 사고는 가장 왼쪽가장자리서 지휘하던편대장이고도 측정을 잘못해 추락하자나란히 一字비행을하던 다른 대원들이 이를 따르다가함께 참변을 당한것으로 추정되고있다。

急降下하다 모두慘變

편대장 高度추정잘못

機首위로못꺾고 沙漠에박혀

목격자들에 의하면 이날 노먼·라우리소령이 지휘하는 T38탈론 제트연습기 4대는 30m 간격을두고 일렬로 비행하다가 급강하회전곡예를 하기위해 시속 6백40km의 속도로 급강하하던중 지상가까이 이르러 미처 기수를 위로돌리지 못하고 라스베이가스근처네바다사막에 함께 처박히고 말았다。

공군 대변인은 이편대가 에어쇼에나가면 수평비행때 날개사이가 불과 1·8m밖에 떨어져있지 않으며 곤두박질 비행을한 때는 지상에서 30~60m 상공에서 다시 치솟게되어있다고 말했다。

사고원인을 조사하고있는 美공군조사반은 선더버드 곡예비행대원들은 비행중 고도와 속도를 일러주는 계기를 살펴보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왼쪽끝편대장기의 동작을 목측으로 따라 비행하는데에 우선을 두도록 교육받고 있기때문에 한대원의 실수가 다른 대원의 죽음을불러일으킨것으로 추측하고 있다。【인디언스프링즈=聯合】

인사이드

應急用「醫療정보카드」개발

필름속에 健康상태기록

렌즈로 보면 個人病歷알아

돌변事故때등 치료 큰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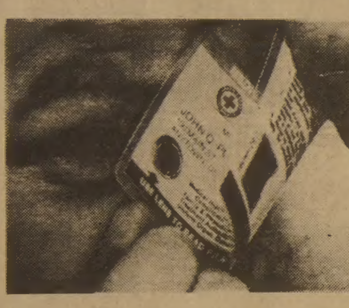
美텍사스州의 렌즈·카드社는 최근 부러지지않고 구부러지며 물에도 젖지않고섭씨1백50도의열에도견딜수있는플래스틱제 의료정보카드를 개발했다。

크레디트카드 크기만한 이카드는 응급시에 영어의 U字모양으로 구부려 렌즈와 마이크로필름이 3cm가량떨어지게한후렌즈를들여다보아 개개인의 기본건강정보를 읽게만든 것이다。

필름에 수록된 건강정보는 혈액형에서부터 심장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심전도、당뇨병、심장병、고혈압의 여부、페니실린 알러지여부、현재 복용하고있는약、주치의사전화번호등 의사들이 처음맞는 환자로부터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사항들이다。

이 의료정보카드는 소지자가 자동차사고등으로 의식을 잃었거나 워낙 경황중이라 자세한 설명을 의사에게 해줄수 없을 경우 신속한 응급처치에 큰도움을 주게된다。

美국립안전협회장 빈센트·토퍼니씨는 작년중 미국인 1천여만명이 갖가지 사고를 당해 응급처치를 받았는데 그중 1백만명가량이 무의식상태였거나 제대로 말을 할수없는 상태였다고 밝히고 모든 사람들이 『의료정보카드』를 가지고 다녀달라고 호소했다。【UPI=聯合】



◇한미국의사가 건강기록카드에 부착된 정보기렌즈를통해 마이크로필름에 수록된 환자의 건강기록을 읽고있다。

인사이드

日、原電보호에 법석

佛로키트被擊事件에 큰충격

당국"安全하다"장담

전문가"파괴행위 대책을"

新設地엔 첩첩防護網

【東京21日=宋孝彬특파원】 프랑스 리옹부근에 건설중인 원자력발전소가19일로키트폭격을 받은 사건은22基의 원자로를 보유、세계제3위의 원자력발전국으로 나서고있는 일본국내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통산성자원에너지廳은 일본국내 원자력시설에대한 외부침입우려는 없으며 로키트나 제트기에의한 테러행위는 더우기 생각할수없다는 당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사건을 계기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여부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 일본과학기술청이 규정하고있는 원자력발전소의 방호시설기준은 『발전소에 점보기가 떨어진다면 혹시 모를까 그보다 작은 제트기가 추락한다해도 끄떡 없을정도』로 완벽한것이라고 당국자들은 장담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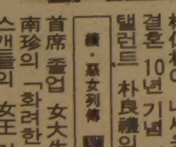
그러나 방사능 유출이나 지진으로부터의 보호등 내부적 보호조치는 거의 완벽하지만 외부로부터의 파괴행위에 대한 안전도 검사는 본격적으로 행해지지 않고있는 실정이다。따라서 로키트탄이나 미사일 공격에 대한 피해는현재로서는예측키어렵다는게同廳전문가들의 솔직한의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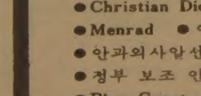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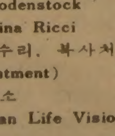
현재 후쿠지마縣에 건설중인 福島 제2原電의 경우 원자로자체를 3·2cm두께의 철강재격납고로 둘러쌓고 그주위에 1·95m의 콘크리트벽을 쌓고 다시 또 1·7m의 콘크리트방호벽을 쌓는등 3중의 防護장치를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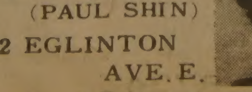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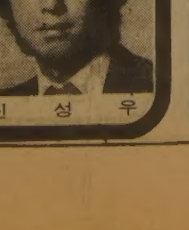
經濟

◆駐韓英國商工會발족=한국에 진출한 英國系36개업체가 駐韓英國商工會를 조직、발족했는데 초대회장은 GEC터빈社의 제임즈·카메론 지역담당이사、간사는 홍콩상하이은행 한국대표사무소장 마이클·본드씨이며 사무실은 국제보험빌딩9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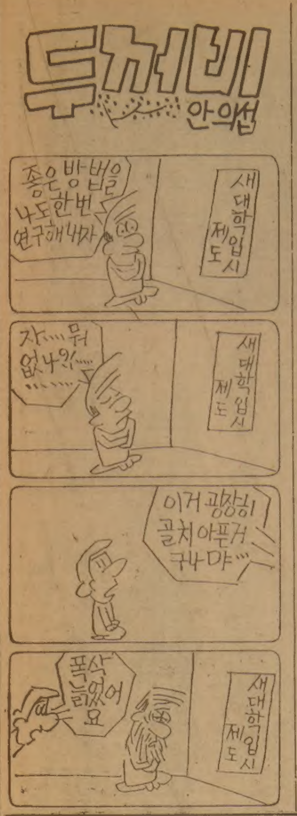
◆롯데쇼핑서 有名브랜드展示판매=롯데쇼핑은、세계유명브랜드 전시판매장을 개설하고 1차로 오는3월초 日本高松屋백화점의 브랜드인 『벨레가』의복을 전시판매。

주간여성
인기절찬 판매중!
1월24일자
주간女性
몸은 40代 마음은 아직도 文學소녀
―「글벗모임」의 주부12명 "同人誌도 내겠다"
柳仁村이 내세운 結婚 조건
결혼 10년 기념 부부 壽石展
탤런트 朴良禮의 인기 秘訣
續·巫女列傳 姬 편
首席 졸업 女大生 공부 秘話
南珍의 「화려한 데뷔 시절」
스캔들의 女王 리즈·테일러
안방 극장서 모습 감춘 張美姬의 안팎 事情
새벽길 매춘 魔手에 납치된 女大生의 告白

탤런트 李鏡珍
판매처 : 각 한국식품점

블루어안경


● Zeiss(Marwite) ● Rodenstock
● Christian Dior ● Nina Ricci
● Menrad ● 안경제조, 수리, 복사처방
● 안과의사알선(No Appointment)
● 정부 보조 안경지정영업소
●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 합니다.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영업시간 : 월~목·9:30AM~7AM
금·9:30AM~8PM
토·9:30AM~6PM
주 소 : 629 BLOOR ST. W. TOR.
전 화 : 531-2236(B), 282-2369(R)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STRA, PARK·AVENUE, 밴트럭, USED·CAR
*Best After Service
*Best Price

264-2311
(PAUL SHIN)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신 성 우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謹賀新年
지난해 동안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오며, 부디 여러분과 온가정이 즐거운 성탄 맞이하시고, 보다 밝고행복된 새해 되시길 하나님께 기도드리 옵니다.
황용현 배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 8645(B), 286-1548(R) M3B 1Z3



결혼예물, 보석 및 시계…
미도파 보석부
다이아몬드·에메랄드·루비 사파이어·진주·오팔
536-1692

高淑鍾여인 死刑구형

尹景花씨被殺

"陳述번복등 情況증거가 犯行뒷받침" 論告

"自白임의성없다 無罪선고해야 마땅" 辯論

"고문못이겨 허위自白…누명벗겨달라" 최후陳述

서울元曉路 尹景花씨등 일가족 피살사건의 高淑鍾피고인(46)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형사3부 金基明부장검사는 21일하오3시 서울형사지법 대법정에서 합의14부(재판장 金藤武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사건결심공판에서 高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적용,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논고에서『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사실에 대해 조금도 참회하는빛이없이 범행을부인할뿐아니라 자기에게 불리한증거가 나오면 수시로진술을 번복해가며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는 것을볼때 피고인의 인간성이 얼마나 추악하고교활한가를 잘알수있다』고지적,『피고인에게는 정상불작량할여지가 거의없어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高피고인의 유죄증거로서▲피고인이 검찰1차신문때 순순히 범행을자백했으며 특히 2차자백은 신문전 피고인의 가족과 친지를 면회한뒤에 한것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이뤄진 이범행자백은 임의성이 있는것으로 범행입증에 충분하며▲수차에걸친 알리바이진술 번복등의 정황증거가 범행을뒷받침하는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밖에 정황증거로▲피고인이 尹씨에대한 신변을 과장해 걱정하면서도 즉시 신고하는데에는 반대했고▲범행후 무차례에 걸쳐 尹씨집을 찾아가 동정을 살폈으며▲피고인집에 10년간 걸어둔 尹씨의 대학졸업 기념사진을 범행다음날 떼어냈다는 것등이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론에나선 吳龍澤변호사는『검찰이 내세우는 유일한 증거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다는 1、2차검찰실문조서 뿐이며 자백은 경찰에서의 강박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나온 임의성 없는 진술에 불과하다』고 밝히고『무고한 국민을 불법감금하고 모진고문끝에 허위자백을 받아낸것이 분명한 이사건에 무죄를 선고해 선량한국민에게 억울한 피해가 안가도록해야할것』이라고주장했다.

한편 최후진술에 나선 高피고인는『고문에 못이겨억지자백을 한것으로 억울하다』면서『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누명을벗겨 달라』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는 마지막증인로 징역1년6월을 선고받은 河형사가 수인복차림으로 나서 변호인의 고문여부 확인신문에대해『천지신명께 맹세코 고문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자 高피고인이『거짓말하지말라』고 울부짖고 끝까지 팽팽한대립을 보이기도했다.

이날 공판에는 1백50여명의 방청객이 나와 상오10시부터 점심식사도 거른채 하오4시30분까지 계속된 공판을 지켜 봤으며 高피고인의 남편등 가족들도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논고와 변론를 들었다.

河형사의 예금증서 절취사건까지 겹쳐 파란을 일으켰던 이사건은 지난해 9월28일 1회 공판이 시작된 이래 이날까지 8회 공판을 끝으로 사건발생 1백83일만에결심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2월1일상오. ★관련기사10면

◇1년6월선고받은 河英雄.

◇나는 罪가없다 사형을 구형받은 高淑鍾피고인. 高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죄인도 아닌 내가 왜 이자리에 앉아있어야하는지 답답하다』고 울먹였다.

河형사 1년6월

預金증서절취 宣告

전 龍山경찰서형사 河英雄피고인(41)에게 징역1년6월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閔世楓판사는 21일상오9시30분 서울형사지법 211호 법정에서열린 河피고인에대한 업무상횡령사건 선고공판에서『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증인들의 증언등으로 미루어 충분히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히고 河피고인에게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할 경찰관인 피고인이 국민의 재산을 침해한것은 경찰관들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으며 특히 강력사건을수사하는 임무를 맡은 피고인이 그증거물을 빼돌린것은 예금통장을 빼낸것은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駐쿠웨이트勤勞者 장애자誠金 보내와

쿠웨이트에 진출해있는 한국건설업체의 모범근로자 23명과 노무관리담당자 11명은 고국의 신체장애자들을 위해 2백65디나를모금, 駐쿠웨이트대사관직원일동의 성금1백디나와 함께 모두3백65디나(韓貨90만4천9백55원)를 21일외무부를통해 한국일보사에 기탁해왔다.

世宗대왕 胎室址 文化財 2點 도난

【釜山=聯】지난16일상오8시께경南泗川郡昆明面隱士里산27구세종대왕태실지(胎室址)에있던지방문화재30호 석조물 상개연엽석과中童石등 2점이 도난당한 사실이 21일 玉洞부락 이장趙性洙씨에의해 밝혀져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도난당한 문화재는 이조세종원년(1419년) 世宗의 태를 묻고 장식했던 석물로 일제말기 황실재단측이 경기高陽郡으로 세종대왕 태실지를 옮기면서 서울과 비석등만 이곳에 남아있었다.

도 문화재당국은 석물전문 호리꾼들이 차를동원,훔쳐간것으로보고 경찰에 수사를의뢰했다.

寶物훔친 20代구속 郭再祐장군 紀念館

【晋州=聯】宜寧경찰서는21일 관람객을 가장해 기념관에 들어가 진열장을 부수고 보관중인 유물을 훔쳐달아난 金진규씨(24·宜寧郡嘉禮面雲岩里)를 절도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金씨는 지난19일 하오4시께 宜寧郡宜寧邑소재 郭再祐장군 유적지인 충익사의 기념관에 침입,안내양 禹정혜양(23)이 잠깐 자리를 비운사이 진열장을 부수고 보물제671호인 장검1점,백동젓가락1점등 13점을 훔쳐 달아났다는것이다.

司祭이자 휴머니스트…강렬한 印象

人類救援의 보편성 강조

——한스·큉敎授가 한국에 남기고간 것

◇明洞대성당 문화관에서 지난 18일하오 열렸던 한스·큉 교수의 강연회.

非信者도 善하게살면 구원없지 않다
固有文化 존중…祭祀등 억제않았어야

『그는 과연 세계적인 頭腦이며 오늘의 대표적인良心이었다』는것이 그를만나고 그의 강연을 들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다. 너무도 유명한 신학 교수이자 가톨릭사제인 그는 한국의 청중들에게『우리는 왜 하느님을 믿을수밖에없는가』를 조리있게 설명해 주는가하면 다른종파 다른종교와의 격의없는 대화를 강조, 휴머니스트로서의 강한인상을 심어주었다. 한국을 찾아왔다가 떠난 한스·큉교수(독일 튀빙겐大·교회일치 연구소장)가 짧은 일정속에서 남긴것을 추적해본다.

한스·큉 교수는 우연하게도 가톨릭교회의 일치주간(18~24일)이 시작되던 날明洞대성당구내문화관에서 강연을 가졌다. 그는 이 강연에서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인 구원의 역사를이야기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미처 알지 못했던 사람도 결코 구원을 잃지는 않는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의 강연 내용가운데는『온갖한 법률정해 세상사람들 꼼짝 못하게한 바리사이파사람들을 철저히 비판하던 예수가 오늘에 다시 왔을때 과연 인위적인 산아제한은 절대 안된다고 말할것인가』『죄인들을 초대해서 자주 식사하던 그분이 과연 오늘의 이혼한 사람들에게도 영성체는 절대안된다고 말할것인가』『성경에보면 예수 주변에서 여인들이자주 시중드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예수가 오늘의 사제들도결코 결혼할수없으며 여성은 사제서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못박을것인가』등 충격적인 대목이 많았다.

큉교수는 또 가톨릭의프로테스탄트에 대한 편협한 태도를 비판하면서 예수가 다시 왔을때는 목사는 성직자로서 결코 인정할수없다거나, 개신교회에서 행해온 성찬례는 아예 무효한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큉교수가 말한 구원의보편성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때 이미 해결된 문제로, 비 크리스천이나 예수 탄생 이전의 사람이라도착하게산 사람들은 크리스천이란 이름이 붙지않았어도 당연히 구원을 받았으리라는 견해가 이에 포함된다.

큉교수의 강연에는 한국개신교의 많은 신학자들이 청중으로 참가하고 직접대화를 나누었다. 그중의 한사람인 監理敎神學大 邊鮮煥교수는 가톨릭전통속에서 거침없이 새로운 개혁을 주장하고 또한 철저한 호교론을 펴는 그의 진지한 신학자적 모습에서 현세속에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했다고 소감을 밝히고 그같은 발언을 明洞대성당구내에서 할수있도록한 발전적 자세야말로 2백주년을 눈앞에 둔 한국가톨릭의 「성숙」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기독교회협회장 金觀錫목사는 한스·큉교수의 포괄적인 신학사상과 에큐메니즘에 대한 견해에 크게 공명한다고 털어놓으면서 특히 예수를 설명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의식혁명을 일으켜 좀더 인간화하자는 많은 선교적 차원에서 경청할만했다고말했다.

큉교수는 유대인박해, 십자군원정,종교재판등과거의 교회가 저지른 몇가지 잘못을 지적하는 가운데 한국에서 조상을 공경하는 제사를 철폐케함으로써 박해를 받은 사실도 교회가 불필요한 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이었음을 상기시켰다.

자신에게 있어 그리스도신앙은「영원한 영신적 고향」이라고 표현하는 큉교수는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에 다소의 결함이있다고해서 등을 돌릴수없듯이 그의 영신적고향도 이와똑같다고 말하면서 자신에대한 교회안에서의 몇가지비판에대해 해명했다.

『교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다가 그리스도신앙안에서의 삶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게되었고, 그럼으로써 긍정적 이야기로 돌아오니 그렇게 마음이 가벼울수 없다』고 털어놓고 그는 이날 강연시간의 3분의2를 자비와 구원과은총의 하느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할애, 청중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다.

그는 성서의 하느님은철저하게 인간을위한 하느님이기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정을 주고받으며 기도를하게된다면서『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해서 父情만을 가진것이 아니라 사실은 母情도 함께 지니고 있는것』이라고 말해 청중을 웃겼다.

크리스천은 삶의 방향설정으로 그치는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말한 그는 그리스도의 정신 즉 성령을 받아 개조할수있는 의식혁명,새로운용기와 자세,행동,그리고인생의새로운의미발견등이 중요하다고강조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는 많은 고통이 닥치고 이런 고통 고난 고뇌 질병 죽음으로해서 실망하는수가 많으나 그리스도신앙을 가지면 이것마저도 하느님이 거두어가신다는 희망을 갖게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크리스천은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정신을 받아 고통을 피하지않고그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자세로 죽음까지도 감수할수있고 이같은 휴머니즘에서용기를 갖게된다는 논리.

강연이 끝난뒤 한개신교 목사는『흔히 가톨릭을 舊敎, 프로테스탄트를 新敎로 부르는 수가많은데 한스·큉교수의 이야기를듣고나니 新·舊敎를 바꿔불러도 좋겠다는 느낌이들 정도라고 역설적인 소감을피력했다. 【李忠雨기자】

시골택시 割增料받는다

郡이하 최고50% 장거리 빈차回車많아

교통부는 21일 오는4월부터 서울,부산등 대도시를 제외한 군단위이하의 시골택시에 대해 최고50%까지 구간별 요금할증을 허용해 줄 방침이다.

교통부가 이같이 운임할증을 허용키로 한 것은 군단위이하의 지방에서 운행되는택시는 주로 장거리구간운임이 많기때문에 빈차로 되돌아오는 사례가 많고 도로가 제대로 포장돼 있지 않아 차량마모가 심하기 때문이다.

교통부는 이에따라 그중에서도 산간벽지에서 운행하는 택시에는 현행 미터요금외에 최고50%까지 할증료를 받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30%의 운임할증을 할수있도록 할계획이다.

그러나 시골택시의 운임할증은 같은 군이나 면내에서는 적용하지 못하도록했다.

각 지역별 택시할증요금은 앞으로 각 시도지사가 지역별로 요금조정위원회를구성,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시골택시들은 이웃 군이나 시지역으로 운행할 경우 사실상 1백%의 추가요금을 받고있는 실정이다.

위조手票1만원券 물건판鐵物商발견

20일 하오4시께 서울江南區方背2洞66의1 李相燮씨(28)가 자신이 경영하는 철물점에서 손님으로부터 받은 明洞路지점발행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이 위조임이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李씨는 이날 35세가량의남자가 1만5천원짜리 연탄가스배출기를 사가면서 이수표를 주어 거스름돈 8만5천원을 내주었는데 지질이 나쁘고 인쇄가 조잡한점을 수상히여겨 은행에 알아본결과 위조임이 밝혀져 경찰에신고했다는것.

引出해간 夫婦영장

韓電온라인行 電氣料3천만원
職員미스로 다른고객口座입금

【釜山=聯】농협중앙회 東萊지소가 창구직원의 잘못으로 온라인을 통해 송금돼온 한전의 전기요금 징수대금을 한달동안 엉뚱하게 일반고객의 구좌에 입금시켜 불법인출케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東萊區 壽安洞 421 농협중앙회東萊지소(소장李榮根)는 지난해12월7일 한전부산지사 東萊지점 서창출장소에서 한전본사 경리부장 보통예금 온라인 8420구좌로 송금해온 전기요금 3천15만1천7백14원을 창구직원의 업무착오로 보통예금 온라인 4820번 일반고객 宋진일씨 (40·東萊區壽安洞353의5) 구좌에 잘못입금시켰다.

이때문에 지난해 11월23일 농협에 입구좌를개설했던 宋씨는 갑자기 자신의 예입금이 늘어나자 한달가까이 농협측의눈치를 봐오다 지난1월5일부터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이돈을 모두 인출,부인李正子씨(38)명의로 釜山鎭區釜田洞 부산투자금융주식회사에 3천만원을 입금시켰다.

이같은 사실은 송금주인한전측에서 서창출장소 입금액이 없는것을 확인,경찰에수사를 의뢰함으로써 뒤늦게밝혀졌다.

東萊경찰서는 21일 자기구좌에 잘못입금된 돈을 인출해간 宋씨와 부인 李씨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宋씨의 불법인출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창구직원등 농협東萊지소 관계자들을 소환,宋씨와의 공모여부및 예금관계서류 일체를 조사하고있다.

승용차로 빈집털이 20代4명令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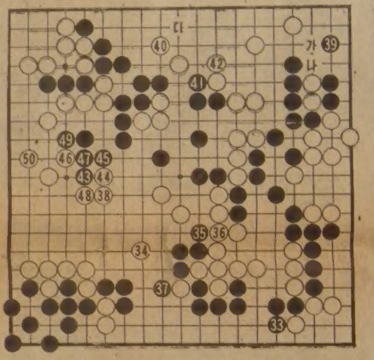
서울시경은 21일 차량을이용,4개월동안 2억5천여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쳐온 朴喜先(20·城南市中洞2970의50)吳成龍(20·城南市太平洞1의1의67)李紀俊씨(22·城南市太平洞1677의58)등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金永哲씨(35·서울西大門區弘恩洞71의109의1)등 16명을 장물취득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승용차를 몰고다니며 지난해12월11일하오7시쯤 서울龍山區梨泰院洞151 李愛子씨(29)집에 침입,컬러TV1대와 귀금속을 훔치는등 지난해10월부터 지금까지 1백20여차례에 걸쳐 2억5천여만원어치의 TV·녹음기·귀금속등 금품을털어왔다는것.

한편 서울시경은 최근 절도범들이 기동화·집단화되고 있다고분석,산하 경찰에 일제 검거령을 하달했다.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1局 第7譜 134~150 (각5시간 덤5집반)



白(5段)張秀英〈3勝〉
黑(6段)徐能旭〈3敗〉

전보에서 白이 우변 黑집을 커다랗게 도려낸것은 일단 성공이라 볼수있지만 대신 黑33으로 막게되자 이번에는 우하귀 白이 야룻한 꼴로 되었다. 까닭은 다음에서 알게 되거니와 힌트를 말한다면 우변白의 생사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白도 이곳은 숫제 손을뺀채 34의 큰곳에 선착, 집으로 대항할 밖에 없다.

34에대하여 黑37은 여전한 몸조심. 이수를 손빼면 白이 37자리에 뻗어서 회돌이같은 모양이 되므로 외곽을 죄어붙이게 되니 이해관계보다도 당하는 자체가 억울하여 전문가는 한사코 피하는것이다.

그리고 며옥 徐6단은 승리를 확신하고 침착하게 마무리지을 심산이기도 하다. 白38로서 중앙쪽에 수월치않은 집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黑39로 우상귀를 지킨수가 또 굉장히 컸다. 이곳은 아마추어의 눈으로도 白「가」黑「나」로 되는것과의 차가 크기만한데 張5단은 중앙을 더 급하다고 본 모양이다. 과연 국후검토에서도『白38은 이에 앞서 우상귀를 黑39자리에 선수한 옴에 두는것이 유리할 것같다』는 논평. 두는곳은 다르지만 좌우간 우상귀를 중요시하고 있었다.

白40은 黑「다」를 예방하여 큰곳. 이윽고 큰끝내기 단계에서 역시 黑은 기민하게 43이하로 좌변白집을 삭감했다. 특히 黑49가 좋은 수순이어서 白은 50으로 억울한 후퇴. 이리하여 黑의 우세는 계속된다. 【一凡】

黑、교묘한 削地作戰

宗敎단신

百周年 기념사업協 26일 2차총회열어

한국교회 1백주년 기념사업협의회(회장 朴敦淳)는 26일하오2시 서울貞洞교회에서 2차총회를열고 오는83년에 가질 전국선교대회의조직정비와 사업계획등을 토의한다. 20개교단대표와 20개교회연합기관대표 1백60여명이 참가할 이날 회의에서는 임원개선도 갖게된다.

천주교회 創立관련 두기념사업회 發足

한국천주교회창립기념사업회(회장 李鍾郁)와 한국천주교회창립 성현후손회(회장 權?)가 지난14일 신라호텔에서 결성됐다.

기념사업회와 성현후손회는 한국천주교회창립에 관계된 인물·장소·업적등을 기념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한국천주교 발상지 天眞菴성역화위원회 총재 金南洙주교가 주재한 이날 창립총회에는 李崇寧·柳洪烈·李順石·李源淳교수등과 卞基榮신부가 자리를 같이했다.

한국神學硏 토론회

한국신학연구소(소장 安炳茂)는 오는 28~30일까지 상지회관에서 「70년대의 한국신학진단」을 주제로 신학토론회를 갖는다. 80년대 한국신학의 방향정립을 위해동연구소 창설1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각교파별 신학도 30명이 참석한다.

超敎派 청년세미나

순복음중앙교회청년선교회가 주관하는 제2회 전국초교파청년지도자 세미나가 오는 2월2~5일까지 汝矣島세계선교센터에서 열린다.

「현대사회속의 올바른 기독청년의 자세」란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의 강사는 조병호(새서울교회당회장) 洪顯卨(감리교신학대명예학장) 趙鏞基(순복음중앙교회당회장) 윤덕수(수유리교회당회장) 한승호(국제대학교수) 김용욱목사(보청년선교회지도)등.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883-9407
●MARKHAM PLACE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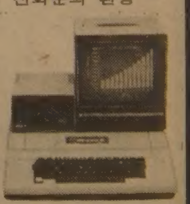
MR. CHOIS RESTAURANT

주중 :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 12시~밤1시
토 : 4시반~11시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759-8512
최 영 호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Dukes Computer
SMALL BUSINESS SYSTEMS
— Computer에 관한 일반적인 전화문의 환영 —
●SPECIAL SALE
자녀교육및 Business겸용
Apple II Plus
●SOFTWARE SERVICE
General Ledger
Account Receivable
Inventory Control
Payroll및 Word Processing
●PERIPHERALS
Printer, Games, Music, Graphics



826 FORESTWOOD DR., MISSISSAUGA, ONT. L5C 1G7
☎: 275-0702 오 영 림

거구장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새벽2시
금, 토 : 오후8시30분~새벽2시
: 오후8시30분~새벽1시
5BETHRIDGE RD. ETOBICOKE
☎: 742-1618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가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 3 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 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 : 30P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삼미떡집2층)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집전화 : (416) 222-9480

黃忠載, 쿠에바스와 싸운다

2月에 美서對決 이겨야 레너드에 挑戰

◇黃忠載

◇쿠에바스

프로복싱 동양 태평양 권투연맹(OPBF) 웰터급챔피언이며 동남 WBA(세계권투협회) 1위에 올라있는 黃忠載(23)가 오는 2월하순 美國에서 WBA前웰터급 챔피언인 KO강타자 호세·피피노·쿠에바스(25·멕시코)와 세계도전 전초전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권투 관계자들은 黃-쿠에바스대전 승자가 WBA·WBC 웰터급 통합챔피언인 슈가·레이·레너드(미국)에 도전하게 될것으로 봐, 2월의전 黃-쿠에바스전은 사실상 세계도전결정전의 성격을띤 중요한일전으로 보고있다.

지난16일 뉴욕發 외신은 黃이 오는 7월 레너드에 도전할 가능성이 짙은 것으로 보도했으나 黃은 對쿠에바스전서 이겨야 세계도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쿠에바스는 세계권투팬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공포의 강타자. 76년7월 앙헬·에스파다를 2회KO로 물리치고 WBA 웰터급챔피언이 된 쿠에바스는 타이틀11차방어에 성공했다가 80년 8월 토머스·헌즈에게 2회 KO로 침몰했다. 쿠에바스는 11차례의 타이틀방어전서 10 KO승을 기록, 역대 웰터급 챔피언 가운데 타이틀전 최다 KO방어기록을 세웠다.

최근 링誌는 전세계최우수 현역선수(전체급) 랭킹서쿠에바스를 17위에 올려 놓고 있어서 黃에게는 쿠에바스가 레너드에 못지 않은 강적이다.

78년 아시안 게임 金메달리스트인 黃은 이듬해 4월프로에 뛰어들어 현재 21연승(18KO)을 기록하고 있으며 80년2월 필리핀의 단데·구즈만을 판정으로 물리치고 OPBF 챔피언이된이래 타이틀12차 방어에 성공, 동양 웰터급 무대에서는 무적이다.

그러나 세계 웰터급무대에는 레너드, 헌즈, 쿠에바스를 비롯하여 로베르토·두란(파나마) 랜디·실즈(미국) 부르스·핀치(미국) 밀톤·매크로리(미국)등 우수 선수들이 많기때문에 黃의 펀치가 …

23歲이하로 年齡제한

국제蹴球聯 84년올림픽 參加자격 改正

【마드리드聯=聯】 국제축구연맹(FIFA)은 19일 마드리드에서 이사회를열고 앞으로 올림픽에서 축구선수의 연령을 23세이하로 제한할것을 결의했다.

FIFA는 이연령제한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제의, 확정짓기로 했으며 가능한한 84년로스앤젤레스 올림픽부터 실시할방침이다.

FIFA가 올림픽 축구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의 연령을 제한하려는것은 세계최고 권위의 축구제전인 월드컵대회가 역시 4년마다 개최되므로 이월드컵대회와 올림픽 축구경기를 분명히 구별하기 위한것이며 프로시스팀이 없는 공산권국가들이 올림픽에서 유리한 입장을 누리는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의도도 내포되어있다.

스테이트 아마추어리즘을 추구하는 공산권국가선수들은 실질적으로 서방국가의 프로선수들과 다름없이 각종경제혜택을 받으면서 운동에 전업적으로 종사하나 외형상 프로가 아니라는 이유때문에 월드컵대회나 올림픽에 모두 자유롭게 출전할수있어 지금까지 올림픽축구종목에선 南美나 서구의 축구강국들 대신 헝가리, 동독, 폴란드, 소련등 공산국가들이 강세를보였다.

필리핀 對한국戰서 선수3명 출전예정

데이비스테니스

【마닐라20日PNA=聯】 필리핀은 22일부터 마닐라잘 코트에서 시작되는 데이비스컵테니스 東部지역예선2차전 對韓國전에서 단3명의 선수로 경기를 치러야할 입장인것으로 20일 알려졌다.

필리핀테니스협회(PHILTA)와 선수단에 따르면 美國에서 활약해온 비르힐리오·시손선수가 왼쪽어깨부상으로 출전선수단에서 제외됐으며 필리핀최우수선수중 한사람인 로메오·라폰도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역시 필리핀팀에서 제외됐다.

臺灣, 中共소프트볼팀 초청

中共 "國旗·國歌 규정 따르면 參加"

共同통신

臺北서 7월세계선수권開催

【北京20日共同=聯】 중공체육당국은 20일 만약 오는7월 臺北에서 열리는 제5차세계여자소프트볼 선수권대회에 대만측으로부터 초청하면 중공은 『명백히』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공 전국체육총회(ACSF)의 한 관리는 이날 대만이 이번대회에 중공을 초청할 것이라는 보도에 언급하는 가운데 이같이 밝히고 단 중공은 주최측이 국기와 국가에 대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규정을 이행할때에만 이대회에 참가할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공은 지난80년 IOC규정에 따라 국제소프트볼연맹(ISF)에 가입했다.

【東京20日共同=聯】 臺灣은 오는7월 臺北에서 열리는 제5차세계여자소프트볼선수권대회에 中共팀을 초청할 계획이라고 교오도(共同)통신이 20일 보도했다.

교오도통신은 臺北소프트볼협회회장 호·밍·창씨의 말을 인용, 참가대상국에 보낼 초청장이 현재 인쇄중이라면서 초청장을 대회조직위원의 로 美오클라호마시티에 본부를둔 국제소프트볼연맹으로 보내면 국제소프트연맹이 다시 중공을 포함한 참가대상국들에 초청장을 전달할것이라고 전했다.

호회장은 또 중공이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의사가 있음을 이미표시한바 있다고 말했는데 대만이 국제대회에 中共팀을 초청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공은 지난달 홍콩에서열린 아시아여자소프트볼 선수권대회에 참가했었다.

해설

소프트·볼이란

1900년경美國의 야구선수들이 겨울동안 실내에서 야구실기훈련을 쌓기위해 고안해 낸 실내운동이었다. 1920년부터는일반인들이 옥외에서 즐기는 기계로발전, 1933년에는 美國내 20개팀이 참가한가운데 선수권대회가 열렸다.

곳에 따라 볼도 다르고 『플레이그라운드·볼』 『인도어·베이스볼』 『레크리에이션·볼』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지던 명칭도 이때부터 모두 통일되어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소프트·볼』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1934년에 美國소프트·볼협회가 창설되고 선수권대회에도 남·여부경기가 따로 실시되었다. 1946년에는 팀이 격증, 美國내 수백만인구가 소프트·볼을 즐기게 되었으며 전용경기장도 많이 생겼다.

1949년에는 국제소프트·볼연맹(ISF)이 창설되고 주로 美軍들에 의해 이경기를 수입한 국가들이회원이 되었다. 1962년 제1회 세계여자 소프트·볼 선수권대회가 美國코네티컷州스트래트포드에서열렸다.

2차大戰 直前

나의 이력서

〈題字 元一漢〉

元一漢 ㊳

1940년여름께 만주에서는 일본과 소련사이에 충돌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운이 짙게 감돌고 있었다.

이때는 휘발유 구하기도 어려워 시내볼일이 있어도 자동차를 쓰지 못하고 新村역에서 기차를타고 서울역으로 나갔다. 돌아올때도 마찬가지였다. 新村과 서울역 사이에 延禧 阿峴洞 西小門역등이 있던 시절이다.

한번은 시내에 나가기 위해 新村역에 나갔더니 일본군과 군수물자를 가득실은 기차가 지나가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탱크가 몇대라고 세어보기도 했지만 나는 기차에 탄 군인들의 눈에 띌까봐 얼른 몸을돌려 역앞은편 간판을 쳐다보는척 했다. 군인열차가 다지나간 다음에야 시내로 들어가는 기차를 타야할 정도로 분위기가 살벌했다.

내가 일본군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던것은 당시 미국사람들 중에 스파이로 몰려 곤욕을 당한 사람이 더러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제2차세계대전후 해군대위로 소해정을 타고 일본 후꾸오까(福岡)에 상륙했을때 일본제복을 입은 경찰 한명이 눈에 띄었다.

이때 문득 이상한 기분이 되살아났다. 바로 新村역에서 만주쪽으로 가는 군인열차를 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얼굴을 돌렸던 그때일이 떠오른것이다.

내가 일본경찰을 보고 느낀감정은 『더이상 일본군을 피해야할 위험이 없다』 『답답할것 없다』 『얼굴을 돌려야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다각적인 심정이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일본사람에대한 미움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한국에서 선교사가 스파이로 몰리던 압박감은 형용할수 없을만큼 컸었다.

많은外國人 諜者로 몰리기도

◇延禧전문학교 학생들이 정동예배당에서 졸업예배를 보러 들어가고 있다。

만주에서의 일본과소련의 충돌가능성은 그해(40년)가을들어 더욱짙어졌다. 미국정부는 한국에있는 미국인 철수를 돕기위해 배를 보내기

美國人들 거의 철수…아버지뜻따라 殘留택해

에 이르렀다. 자국민의안전을 도모하려는 배려였다.

仁川항에 도착한 배의 이름은 마라토사號였다. 선교사를포함한국에 있는 미국인들이 이배를 타고 철수했다. 아마 4분의3가량이 떠났을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에있던 외국인들 모두가 다 마라토사號를타고 떠나야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머물러야하는지 한동안 망설였고 어린이들이 있는 가정은 대부분 승선의 길을택했다.

아버지가 택한길은 단연 남는 쪽이었다. 먼저도 밝혔듯이 선교사로서 학교를 경영하지 못할경우 양심이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굳은결의였다. 미국선교부가 귀국명령을 내릴경우 개인자격으로라도 남겠다는 뜻을 비치기까지했다.

주변에서는 元漢慶박사는 남더라도 자녀들과부인은 먼저 떠나보내지 그러느냐는 말도있었지만 우리가정은 아버지와 함께 남기로 했다. 아버지의 이같은 고집은 어디까지나 기독교정신이었었고 그바탕은 한국독립 정신과도 상통하는 것이었다.

마라토사號가 떠난다음에 서울외국인학교는 90명가량이던 학생수가 11명으로 줄어들었다. 강사는 학생수보다 더많은 16명이었다.

나도 시간을내어 외국인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다. 대학시절의 전공이야 다르지만 수학에는 취미가있었기에 이 과목을 맡았다. 물론 무보수였다.

학생보다 선생님수가 더많은 학교가 한국의 어느 落島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40년11월부터 약 1년간 서울외국인학교가 그랬던 것이다.

고국의 향수가 듬뿍어린
미도파백화점 비디오부
연속극, 가요, 문학, 영화, 전설…
454 BLOOR ST. W.
536-1692

스위스 헤스優勝

1分33秒66 기록 스키 女子활강

【바트가슈타인(오스트리아)20日AFP=聯】 에리카·헤스(19, 스위스)는 바트가슈타인에서 벌어진 월드컵여자알파인스키대회 회전활강경기에서 1분30초66으로 골인,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1분31초16을 기록한 우르술라·콘제트(리히텐슈타인), 3위는 1분32초15의 파비엔·세라(프랑스)가 각각 차지했다.

헤스는 이번 회전활강경기 우승으로 대부분의 종목에서 수위를 차지했다.

世界알파인스키에 史上처음參加발표

中共스키協

【北京20日AP=聯】 中共은 28일부터 2월7일까지 오스트리아에서 열리는 세계알파인스키선수권대회에 中共스포츠史上처음으로참가한다고中共스키협회가20일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작년 5월 국제스키연맹에 처음으로 가입한 中共이 이번 스키종목 처녀출전에 남녀선수각각 3명씩을 파견한다.

中共은 80년 처음으로 동계올림픽에 참가했는데 中共의 이종목실력은 아직 미진한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무대에서 어느정도 위력을 발휘할수 있을지 주목되고있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6>

朴婉緖 作　金光培 畵

숨바꼭질 ③

그 정도의 인연밖에 없는 사이로 고아원을 없앤 일의 자잘못을 따지려는것도 부당했지만 그 정도의 인연밖에 맺은 일이 없는 아이들을 앞으로 못보게되리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섭섭하고 허전하리라곤 수지로서도 뜻밖이었다.

여지껏 일년에 한번 그곳을 찾는일이 그녀의 삶 맛과 삶의 의미의 구심점이었던양 그녀는 잠시 우두망찰을 했다.

사모님은 그런 그녀를 참 별 꼴 다보겠다는듯이 바라보았다. 약간 그 시기가 앞당겨졌을 뿐 「오누이의 집」은 문 닫게돼있었다. 문닫을 준비는 새로운 고아를 받지 않기로 한 오륙년전부터 이미 시작한거나마찬가지였다.

고아원한답시고 국내 국외에서 들입다 구걸을 해다가 그까짓 고아들이야 굶주리고 헐벗거나 말거나 제 식구 호강시키고 제 재산 늘리는데만 눈이 시뻘건 자선가도 허구 많은 세상이었다.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 고아들은 인간이 아니라 자본(資本)이었다.

『우린 아이들을 끝까지 사람대접 했어. 비록 그만뒀지만 털어도 먼지 하나 안나게 뒤끝은 깨끗하게 아물었어』

수지의 추궁에 잘못한것도 없이 위축됐던게 뒤늦게 분했던지 차를 내온 사모님이 정색하고 말했다.

아이들이 안보이는 마룻방은 턱없이 넓고 썰렁했다. 칠이 다 벗겨진채 때가 더께로 앉은 마룻장은 근덴근덴 놓기도하고 괴기한 소리로삐걱대기도 했다. 숫제 마룻장이 빠져 비밀통로처럼 깊이 모를 음흉한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것도 군데군데 있었다.

양쪽 벽엔 아이들이 쓰던 사물함이 아직도 그냥 쌓여 있었다. 사물함 역시 섭한건 하나도 없었다. 누더기나 헌잡지 나부랑이가 꾸역꾸역삐져나오기도 하고 문짝이 열려있거나 아주 없어져버린채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사물함 때문에 벽이 쏟아져내릴것처럼 위태로와보였다.

그러나 남향이 온통 유리문으로 돼있는 마룻방에서의 전망은 일품이었다. 너절한 버스종점은 언덕 그늘에 가려 안보이고, 들판과 고색창연한 마을과 강을 원경으로 하고 고아원까지의 숲이 깊은 언덕길과 바위 빛깔이 정결한 낭떠러지밑의 아기자기한 계곡과, 고아원 뜰의 나이 먹고 잘 생긴 느티나무까지도 마치 카메라의 파인더가 바로 이거다 하고, 잡아가둔것처럼 나무랄데없는 한폭의 목가적인 풍경화였다.

『경치가 좋군요』

수지는 자신도 이해할수없는 낭패감과 혼란을 어느정도진정하고나서 뚜둣이 말했다.

『수지 학생도 이 집터가 얼마나 명당자리라는걸 이제야 알았지? 그치?』

사모님은 뭐가 그렇게 신기한지 눈을빛내면서 반색을 했다.

『네, 그런 것 같네요』

『우리도 요새 그걸 알았다니까. 이 집터때문에 우리에게 무슨일이 생겼는줄 알아? 참, 사람팔짜 시간문제라더니…』

사모님이 실팍한 허리를 꼬며 킬킬거렸다. 수지는 어딘지 정서적으로 불안해뵈는 사모님을 물끄러미 바라만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원장 선생님한테 생겼다는 일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이고말고. 에미애비도 버린 아새끼들 줏어다 키우는일보다 더 나쁜 일이 어디있을라구. 그렇지만 그 어려운 일로 공덕을쌓은 덕택일거야. 우리에게 별안간 큰돈이 굴러들어온건 말야』

사모님의 얼굴이 함박꽃처럼 염치없이 피어올랐다.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 連載漫畵

"안녕, 여보" "다녀오세요, 여보"　그르르르　쪽　"저건 키스를 청하는 방법치곤 참 버릇이없죠"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5일에 $13 로
원하시는것을찾으실수있읍니다.

★사업체 매매 ★부동산 매매 ★자동차 매매등 모든것을 사고 파실때는 우선 한국안내 광고를 이용해 보십시오. 3일에 $13로 만족스런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광고문안을 아래 네모칸에 알맞게 적으셔서 CHECK 동봉하여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우편이 접수된 다음날부터 게재됩니다.

*1칸 : 5일 — $13　두칸 : 5일 — $26　세칸 : 5일 — $39

1칸

■보내실곳 : THE KOREA TIMES AD. DEPT.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아리랑 한국민속 큰 화 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한국정취 담뿍 풍기는 이 민속제전에
오시라, 보시라, 들으시라

한국 음악계의 원로 김생려 선생과 민속무용의 권위자 권스텔라 선생 지도
때 : 1982년 3월 3일～4일 밤 8시
장소 : RYERSON THEATRE (라이아슨 극장)
43 Gerrard St. Toronto
예매처 : 무나미 트로피(298-3584) / 미도파 백화점(536-1692) / 한인연합상사 (251-6578)
동궁식당 (757-6334) / 기타 주요식품점및 한인상점 / Eaton's TICKETRON (595-5088)

토론토 한인 라이온즈클럽 제공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週刊한국

Benjamin Moore PAINTS
블루어 하드웨어
전기제품 일절
가정용, 공업용 TOOL
재료일절
판매수리
변 의 섭
주소 : 608 BLOOR ST. W.
전화 : 531-6183

海外移民 門户 활짝 열려

一石二鳥의 企業이민등 活潑·實態로 구며본 새 가이드

새해들어 해외이민의 길이 대폭 넓어졌다. 이민을 받아들이기에 지극히 인색했던 濠洲와 캐나다가 이민수를 크게 늘렸고 칠레등 南美지역에선 企業移民, 企業農移民이 맹렬히 추진되고있다. 이같은 이민대상국의 여건변화에 따라 정부는 금년도 이민 목표를 우리나라 移民史上 최대숫자인 3만8천7백50명으로 잡고있다. 해외이주법이 제정된지 올해로 만20년—. 새 국면에 접어든 우리나라 移民은 어디까지 왔을까. 그 실태를 중심으로 이민 가이드를 엮어본다.

금년도 目標 이민史上 最大
濠洲·캐나다등 受容幅 늘려

지난해 10월, 해외이민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 아래 새 해외이주정책을 쓰고 있는 정부는 그 첫해가 되는 올해 이민 목표를 3만8천7백50명으로 채정, 목표 숫자로 보면 史上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保社部는 이를 위해 연고초청이민을 과감히 개방하고 이주사업을 민간 주도로 전환, 기업이민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保社部는 이밖에 정부간 교섭을 통한 농업이민 등 정책이민도 계속 추진, 앞으로 10년동안 적어도 1천가구의 이주를 목표로 하는 장기계획을 마련키로 했으며 농업이민이 재개된 南美의 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과이에 2천ha의 농지를 매입, 이주시킬 계획이다.

정부의 이민정책 중 최근 들어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민은 기업체를 이민 대상국에 이주시켜 企業을 운영시키는 企業이민이다.

企業이민은 대국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남아도는 기술자와 기계, 원자재등을 수출함으로써 많은 외화 획득을 할수 있다는 큰 잇점이 있다.

또 개인이 아닌 단체의 이주이기 때문에 기업이 번창함에 따라 얼마든지 기술자와 원자재를 보낼수 있어 인구정책뿐아니라 경제정책면에서도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企業移民에 가장 먼저 손을 댄 업체는 민간 취업이민 관계업체인 「범홍공사」였다. 범홍공사측은 80년 중반부터 中南美지역에 조사단을 파견, 현지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南美지역이 자원이 풍부한데 비해 기술개발이 미비해 공업 형태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데다가 실업률이 아주 높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그런 헛점에 착안해서 현지 정부측에 자본과 기술자들을 이주시켜 공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현지 실업자들을 최대한 고용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워 기업이민을 받아줄것을 제의했다.

반응은 지극히 호의적이었다. 자기네 입장으로 볼때 손해볼것이 없을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효과를 얻을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같은 기초작업에 따라, 지난해 5월에는 우리나라 정부측이 앞에 나섰다.

南美지역을 순방중이던 千命基 보사부장관은 우선 칠레 정부와 협의, 한국은 칠레에 소규모 제조업소를 중심으로 한 기업이민을 보낼수 있도록 합의했다.

그 합의내용에 따르면 한국은 자본규모 10만달러 이하의 봉제, 목공예, 플래스틱 제조업, 인쇄업 등 기업이민을 보내게 된것인데 이때에는 기업주와 그 가족은 물론, 일정수의 종사자가 집단으로 칠레정부의 이주 허가를 받아 이민을 하게 된다는것이었다.

千장관은 칠레에 이어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당국자와도 회담, 아르헨티나로부터도 『지역개발을 위해 한국에 이민의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런 정책적 근거에 따라 파라과이에는 지난해 9월, 한국인의 기업이민으로는 최초로 白明輔씨가 이끄는 소규모 방직공장 「돌하」가 상륙, 준비작업을 편 끝에 지난 정초부터 본격 가동을 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한국인—파라과이인의 합자회사로 설립됐지만 실질적으로는 白씨가 실권자. 이 회사의 월 평균생산량은 약 5천㎏으로 5만달러 상당, 본격화되면 약 60만달러선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돌하측은 이들 제품에 필요한 원사를 우리나라에서 들여 갔고 기계도 동일방직에서 사용하던 기계를 운반해 갔다.

또 금년초에 3가구의 기술자 가족을 데려갈 계획이고 앞으로도 많은 기술진을 계속 초청해서 정착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南美 각국企業이민 대환영
한물간 業種도 그곳선勝算

파라과이에 이어 현재 기업이민이 실천단계에 있는 나라는 칠레. 칠레는 구리생산량이 전세계 생산량의 23%인데다가 원목, 몰리브덴, 해산물등 자원이 풍부해 연간 30억달러의 자원수출실적을 올리고 있는 나라다.

그렇게 자원이 많고 인적자원이 풍부하지만 칠레의 공업수준은 후진성을 면치 못해 자원에 대한 1차 가공능력도 없어 자원을 원료상태에서 값싸게 팔뿐만 아니라 실업자가 들끓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입지조건이 좋은 칠레에 대한 기업이민도 지난해초부터 추진돼 왔는데 지난 연초에 이미 불로크 제조시설을 비롯, 화장지와 포장지 제조시설이 선적됐다고 한다.

파라과이, 칠레뿐만 아니라 南美 국가전체가 현재 한국의 기업이민 진출을 비상한 관심속에 지켜보고 있고 그 정착과정에 따라 기업이민을 받아들일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기업이민의 전망이 아주 밝은 南美지역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이미 한물 간 기술과 기계가 빠져 다가 현지에서 새바람을 일으킬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잇점—현재 추세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6·25직후에 활을 쳐다가 지금은 시들해 버린 중소기업 분야라면 대체로 승산이 클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南美지역에서 기업이민 진출에 일단 성공한 「범홍공사」측은 금년도의 새 계획으로 企業農 移民을 추진중에 있다.

종래 추진돼 오던 농업이민은 농민 개인의 이민이었다. 그러나 企業農移民은 희망자들 스스로가 자본·기술·인력을 갖춘 10명 안팎의 농업이주단을 구성, 관계업체와 현지 정부측 주선에 의해 집단이주하는 새로운 이민형태—.

따라서 이들 企業農 移民집단이 南美지역에 이주하면 사탕수수, 스테비(천연 감미석물), 땅콩 등 특수작물을 3부작~4부작씩 재배, 고소득을 올리게 한다는것이다.

이경우 정부 차원에서 이들 교민들이 생산하는 농작물을 사줄수 있다면 企業農移民은 더욱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릴수 있을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쿼터에 묶인 美國移民

南美지역이 「미개척지인 황금의 寶庫」라면 미국·濠洲·캐나다는 「풍요가 넘치는 경제大國」이라고 할수 있다.

이중 미국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이민을 받아 들이고 있지만 일반 이민의 경우, 연간 受民 숫자가 전세계에 통틀어 27만명으로 제한된 쿼터제에 묶여 있는데다 대부분 연고초청 이민이어서 무연고자에게는 기회가 적은 것이 큰 아쉬움이다.

미국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교민이 일반체류자를 합쳐 62만여명에 이르고 있고 해마다 3만여명이 연고초청, 국제결혼, 입양, 취업등의 방법으로 미국이민을 떠나고 있다.

미국의 이민은 특수이민과 일반이민으로 나누어진다.

특수이민 대상은 美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이하 미혼자녀, 부모, 미국 정부기관에서 15년이상 근무한 자 등인데 이 경우는 쿼터제를 적용하지 않고 무제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반 이민의 경우는 대상을 1~7등급으로 구분, 한나라에 대해 연간 최고 2만명씩 받아들이고 있다.

이중 1순위자는 美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2순위는 美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자녀, 3순위는 현재 미국내에 취업하게된 의사, 약사, 간호원, 영양사, 물리치료사등이었으나 근래에는 6순위로 밀려져 다른 대상속에 포함돼 처리되고 있다.

4순위자는 美시민권자의 기혼자녀, 5순위자는 美시민권자의 형제자매, 6순위자는 무연고 취업이민자, 7순위자가 망명요청자등이다.

이들 대상중 연고가 없는 일반인이 해당되는 6순위의 무연고 초청이면 케이스—.

취업이민 대상 직종은 의사, 간호원, 물리치료사, 원예사, 요리사, 재단사등 라이선스직과 중장비 운전및 정비공, 자동차및 오토바이 정비공, 냉동공, 기계수리공, 목공, 시계수리공, 구두수리공, 용접공, 전기공, 카메라 수리공, 병아리감별사, 鍛鐵工등인데 어느 경우, 대부분 경력증명서를 갖춰야 한다.

이들이 미국에 취업이민을 하려면 미국의 이민정책을 파악해야 한다.

미국이 외국 기술자를 불러들이는 경우는 개인이나 단체가 새 직원을 채용할 때 自國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 한한다.

農業이민 集團구성 바라고
技術있으면 無制限 받기도

희망자가 현지의 친지나 국내 알선업체(해외개발공사, 南美이주공사, 삼양어주공사)의 알선에 따라 채용이 결정됐다 해도 미국의 美노동청 개인노동허가를 받고 移民局의 심사에 통과돼야 초청장을 받을수 있다.

따라서 수속 착수에서 비자발급까지는 2~3년이 소요된다.

□넓어진 濠洲·캐나다移民

濠洲 이민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 문이 너무나도 좁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그 기회가 대폭 넓어졌다.

이같은 새 계기가 생긴것은 지난해 12월12일, 千命基 保社部장관이 이안·매피 濠洲 이민성 장관과 회담, 한국인 기술 인력의 濠洲 이주를 크게 늘리기로 합의한데서 비롯된것.

당시 濠洲측이 밝힌 對韓 이주정책은 濠洲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면 수에 제한 없이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며 기술자나 기업의 영구적 이주는 환영한다는것.

그러나 단기 취업이나 정단 이주에는 난색을 보였다.

濠洲는 오는 4월부터 연간 이민 쿼터를 15만명 (미국 27만)으로 대폭 늘려 현재 濠洲에 가까운 친족이 있으면서 고용 전망이 있거나 숙련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이민 문호를 우선적으로 개방하는 한편, 무연고 기술자도 단계적으로 받아들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미 관계업체를 통해 이민 신청을 해서 현지로부터 1·2차 서류심사를 받은뒤 현재 취업 대기중인 해당 기술자가 수백명에 이르고 있다.

서류심사 합격자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濠洲가 환영하는 기술 직종은 용접공, 보일러 제작공, 대장공, 판금, 엔지니어공, 전기공, 칫과기공사, 통신사, 항공정비사, 컴퓨터 관계 전문가 등등이다.

캐나다 이민의 앞날도 밝은 편이다.

캐나다 이민은 지난해 9월 캐나다의 트뤼도 수상이 내한, 全斗煥 대통령과 회담한 끝에 『한국인의 더 많은 이민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힘으로써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캐나다 정부의 이민정책은 할당제가 아니라 캐나다에 가족이 있는가 여부, 이민 신청자의 건강및 교육수준 등을 중시하는 포인트 시스템(점수제)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캐나다 이민은 연고 초청 이민의 비중이 큰 편으로 이런 대상자에게는 기회가 많다.

이에비해 취업 이민할수있는 직종은 대부분 기술직으로 고용조건도 유리하고 한국인에 대한 인식도 좋은 편이다. 현재 한국교민은 4만명 정도.

이민희망자는 駐韓 캐나다 대사관에 직접 찾아가 이민 해당 여부를 묻고 상담하면 된다.

알래스카선 6천家口 요청
제2의 中東붐 일어날지도

□자원寶庫 알래스카

美 알래스카는 일찌기 우리나라 사람들 이민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는 생소한 지역—. 그러나 최근들어 現代, 三星 등 몇몇 대기업이 알래스카 지하자원 개발을 위해 본격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알래스카州정부에서 우리나라에 6천가구의 이민을 요청해 와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요청을 서한으로 받아 우리 정부에 전한 鮮逸商船(대표 金大一)측에 따르면 알래스카는 방대한 경지면적(8만㏊)에 대해 농업인구는 7백가구밖에 안되며 총 소요 식량의 5% 정도만 자체 생산한다는것. 따라서 식량자급이란 방대한 농업개발계획을 수립, 그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 대해 6천2백50가구 상당의 농업이민을 제의해 왔다는것이다.

따라서 우리정부에서 이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알래스카는 中東에 이어 제2의 인력진출 붐을 이룰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白承俊기자〉

◇캐나다 토론토市의 한국인商街。 캐나다에는 현재 4만여 교민이 살고 있는데 앞으로 이민길이 넓어진다。

◇이민생활에 정착한 알 在美동포자영의 청과物상。

광고는 사업을 번창시킵니다
533-2361

한국人10大疾患 독감이 으뜸

기관지炎·胃궤양·齒牙·婦人질환 順

9세이하 發病率 특히높아 百34%
40세고비 癌등 急增…醫保대상자62%가 한번씩病院찾아

가톨릭醫大 두敎授 전국醫保대상자 6개월간 調査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10대질환은 ①유행성독감 ②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③위, 십이지장궤양 ④치아와 그 부속기관의병 ⑤부인과질환 ⑥순환기질환 ⑦장관계감염 ⑧비뇨기과질환 ⑨만성류머티즘성심장병 ⑩중수염의 순인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尹任重·趙英濬교수팀이 80년1월1일부터 6개월동안 전국의료보험대상자 5백38만9백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질병조사결과 밝혀진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전국규모의 질병조사가 이루어진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尹·趙교수팀이 밝힌 우리나라 주요 질병동태조사분석결과를 간추려 본다.

이번 조사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안한 질병의 국제분류법에 따랐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가장 흔한병은 ▲유행성독감으로 10만명당 2만7백73명(20·77%)이 이병으로 병원을찾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다시말해서 1백명 가운데 적어도20명이 6개월마다 한번꼴로 유행성독감에 걸려 병원을찾고 있는셈 이란것.

다음이 ▲기관지염·폐기종·천식(9·77%) ▲위·십이지장궤양(4·56%) ▲치아와 그 부속기관의병(4·40%) ▲부인과질환(2·96%) ▲순환기계통질환(2·18%) ▲장관계감염(2·01%) ▲비뇨기과질환(2·0%) ▲만성류머티즘성심장병(1·56%) ▲중수염(1·19%)의순을 보였다.

전체의 2%정도가 시달림을 받은것으로 나타난 장관계감염은 9세이하에서 높은 발병(7·2%)율보여 특히 어린이들에게 문제가되고 있는 병으로 나타났다.

폐결핵은 평균 0·7%의 유병률을보여 아직도 큰 사회병이 되어있다. 폐결핵발생률은 연령이 많아지면서점차 높아져 70세이상에선 1·3%에 달했다.

9세이하의 영아와 유아의 전체발병률은 1백34·1%를보여 6개월동안 모든어린이가 적어도 1회이상 병원을 찾은것으로 되어있다. 9세이하에서 아토록 많은 질병발생률을 보인것은 가벼운 병이라도 어린이는 병원치료를하고 있는것으로 풀이된다. 홍역은 9세이하에서 2·9%의 발병률을 보였다.

연령별로 질병의 형태도 달라 70세이상에선 암과같은 악성신생물을 비롯, 귀·눈·치아계통의 병과 순환기계질환, 만성류머티즘성 심장병, 고혈압성질환, 심근경색증, 만성기관지염등이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10대에서는 인플루엔자, 기관지염, 치아계통의 병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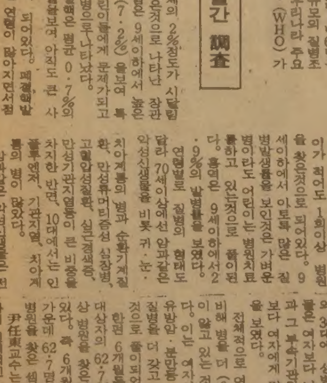
암과같은 악성신생물은 전체의 0·4%에서 발견되었는데 40세이하에선 0·3%, 이상에선 이의 3배에 달하는 1%정도를 나타내 40세를 고비로 급격히 늘고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여성의 자궁경부암은 20대부터 늘고있는 경향을 보였다.

병별로 보면 순환기계질환과 위·십이지장궤양은 40대, 심근경색증은 30대, 요로계통의 병은 30대이하, 유산과 난관및 난소염은 20대와 30대에, 성병과 악성신생물은 여자보다 남자에게, 눈과 그 부속기관의 병은 남자보다 여자에게 많은 발병률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여자가 남자에 비해 병을 더 (6·5%) 많이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유방암·분만등 여성특유의 질병을 더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었다.

한편 6개월동안 의료보험 대상자의 62·7%가 한번이상 병원을 찾은것으로 되어있다. 즉 6개월동안 1백명 가운데 62·7명이 병에걸려 병원을 찾은 셈이다.

尹任東교수는 과거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질병조사 자료가 없어 비교할수는 없으나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점차 전염성질환이 줄어가고있고 반면 [illegible]성질환이 늘고 있는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이에 대처한 보건정책이 따라야 할것이라 했다. 특히 암의 95%정도가 환경이 만든다는 주장이고 보면 환경오염이 심각한 우리나라의 경우 암과같은 악성신생물환자는 크게 늘전망이란것.



◇의료보험대상자의 62·7%가 6개월마다 한번꼴로 병원을 찾고있다。

고국소식이 궁금하십니까? 신문 구독 및 광고 문의 (416) 533-2361~4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일보

한자리에 모인 人間文化財들의 솜씨 자랑

비록 公休日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舊正만큼 우리들의 마음을 설레게하는 큰 명절도 따로 없는것 같다. 밤새 화롯가에서 인두질을 하며 설빔을 손수 지어주던 자상한 어머니의 모습이 추억속에 자리 잡고 마음은 故鄕으로 달리는 舊正—. 새삼 옛 어른들의 안방솜씨와 멥시가 돋보이고 과장이나 허세가 없던 옛 情緖가 그리워지는 때이기도하다. 爐邊의 情談이라도 쏟아놓을 듯싶은 無形文化財들의 寶貨같은 工藝솜씨들을 한자리에 「설빔」으로 모아 보았다. ★컬러畵報 참조

롯데쇼핑7층에 常設展示場

우리 조상들의 美的기능과 멋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현대에 재현시키고있는 전통공예의 人間文化財는 20개분야에 걸쳐 25명에 불과하다. 人間文化財들은 대부분이 고령이라서 그간 33명이 指定을 받고도 8명이나 세상을 떠난 것이다.

예부터 이어져오는 전통공예의 멋과 솜씨의 뿌리를 이어주고 있는 人間文化財들의 숫자가 稀貴의 極에 달한 아타까운 현실이다.

도자기나 건축물·書畵같은 有形文化財들은 잘 보존만하면 1백년, 1천년도 이어갈 수 있지만 人間文化財는 傳承者를 제대로 길러놓지 않는다면 수백·수천년을 이어온 기능의 맥이 단절되고 만다.

이 때문에 우리 文化의 뿌리를 이어주고 있는 「살아있는 文化財」를 보호·육성시키고 傳承者를 양성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傳承者를 한사람 양성하는데는 장구한 세월이 걸린다. 1~2년만에 또는 5~10년만에 가능한 기능올림픽의 기능공을 길러내는 시간 정도로는 어림도 없고, 적어도 20~30년의 양성 기간이 흘러야 한다.

현재 생존하고있는 최고령자이기도한 靴匠 黃漢甲옹(93·重要無形文化財37호)의경우, 16살때부터 家業인 꽃신을 제작하는 일을 시작한 匠人. 그는 祖父 黃桂花, 伯父 黃仁燮, 黃義燮씨의 뒤를 이어 3代째 꽃신을 家業으로 해온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는 주로 德壽宮, 雲峴宮 別宮 義親王宮등의 꽃신을 만들어 왔고 國喪이 생겨 온 백성이 白靴를 신게 될 경우에는 야간작업을 해도 다 못하던 시절이 있었다. 한때 高宗황제의 赤舃을 부탁받고 밤새워 만들던 추억을 간직하고 있으나 生活은 어려운 편이다.

◇人間文化財 37號인 靴匠 黃漢甲옹—1889년 3월 30일 생이니까 올해 나이 94세. 꽃신을 제작하는 집안에서 태어나 3代째 靴匠을 家業으로 하고있다.

현재 人間文化財 20개분야중 25명에 不過

거의 高齡, 후계養成에 30년

그의 뒤를 이어 외아들 黃登龍씨가 기능을 익혔으나 80년에 세상을 떠나고 그의 손자가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 기능을 이어가고있다.

후진양성에 온갖 정성을 다 쏟고있는 金奉龍옹(81·螺鈿漆器匠)의 경우도 역시 고령인데다 전승자양성에는 장구한 세월이 소요될뿐 아니라 부지런해야 한다며 노구를 피롭다 않고 손수 작업에 나서고있다.

金옹 역시 螺鈿漆器에 손을 댄것은 16살때부터 였으니까 지금까지 66년간을 힘들고 고독한 외길을 걸어온 匠人중의 匠人이다(重要無形文化財10호).

처음에는 나전칠기계의 名人 朴貞洙옹에게 사사를 하였고 30대후반들어서는 金成奎옹에게 지도를 받았다.

그는 1925년 파리에서 열렸던 세계장식공예품 박람회에 大花瓶을 출품해 銀賞을 받음으로써 한국전통美를 이미 반세기 이전에 과시한 소중한 인물이다.

76년에 와서야 전통공예에선 최초인 회고전을 가졌으니 한 분야에 沒念하는 文化의 진통이 어떤것인가를 헤아릴수 있을 것이다. 슬하에 5남1녀를 두고있는데 2남이 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하면서 이 일에 종사하고 있고 내제 아들이 직접 金옹을 도우며 나전칠기일을 전승해가고있다.

◇16세때부터 시작한 螺鈿漆器를 만들며 외길을 걷고있는 올해 81세의 人間文化財 10號 金奉龍옹.

전통공예=전통문화를 가꾸고 이어주는 일이란 當代의 忍苦와 신앙같은 修行없이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닐수없다. 모차르트나 슈베르트, 또는 차이코프스키같은 西歐와 러시아의 음악 천재들이 하루 아침에 탄생한 것이 아닌것처럼, 한국의 傳承文化를 어떤 천재에 의해 꽃 피우게 하기 위해서는 이를 아끼고 지원하고 사랑해줄 줄 아는 풍토와 거반이 조성돼 있어야 할것이다.

사실 人間文化財를 무대 위에 선 악사나 성악가들 못지 않게, 또 그 이상의 정열과 집념으로 평생을 바쳐 문화의 얼을 키우고 솜씨를 닦으며, 손 마디 마디의 굳은 살을 베어내고 무릎이 굳도록 제 자리를 지켜왔다. 갓일(笠子匠·양태匠·총모자匠)의 高丁生할머니(75), 吳松竹옹(78), 한산모시짜기의 文貞玉여사(54), 彫刻匠의 조이장의 金鼎燮옹(84), 거문고를 만드는 樂器匠 金廣曹옹(77), 弓匠의 金章煥(72), 張鎭燮(67), 權寧錄옹(67)과 矢匠의 朴商俊옹(71)등은 한 일에 精進하는 이들이다.

아름답고 포근한 彩箱子를 만드는 金東連할아버지(85)의 상자를 앞에 놓고 보면 1백년전즈음의, 얼굴도 알수 없는 우리집안의 祖上을 대하는듯 따사로움을 느끼게 된다.

그분인가—朴均錫옹(63)의 채색된 북을 들고 두드려보면, 山寺의 法鼓소리가 되어 人間事 煩惱를 씻어간다.

弓匠 張鎭燮옹은 활을 3代째 제작하는 집안의 외동아들로 태어나 부친 張基弘씨의 뒤를 잇고 있는 匠人. 그의 집안은 역대 御弓을 만든 집안으로 유명하다. 그의 할아버지 張門漢씨는 高宗의 활을 만들어 진상한 적이 있는데, 이 활은 아직도 사직공원에 있는 黃鶴亭에 보관돼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張鎭燮옹은 그의 선친이 저술을 다 전수해주지 못한채 작고하는 바람에 生計의 어려움보다 기술의 완전습득을 못다한 고통 때문에 더 괴로왔다고 한다.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아 71년에는 人間文化財로 지정을 받기에 이르렀고 세 아들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가업을 물려주느라 전력중이다.

「傳統工藝技能 保存協」발족

우리固有의 멋 되새겨보게

그러나 더 절실한 문제는, 몇 안되는 이들 人間文化財들이 그들의 고초와 역경속에 익히고 보존한 전통문화를 많은 현대의 후손들에게 알리고 보급하는 일이다. 근래 들어 차츰 사회 저변층에 전통공예에 연식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많은 외국 손님들을 맞게될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 우리 고유의 멋과 솜씨를 자랑할 절호의 기회가 되고있다. 이를위해 人間文化財들을 주축으로 발족된 「전통공예기능보존협회」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무료로 제공된 상설전시장을 갖게됐다(롯데쇼핑 7층).

아직은 좁은 공간밖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내내 지 못한 형편의 人間文化財들로서는 늦게나마 고무적인 경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모처럼 한자리에서 여러 人間文化財들의 전통미를 감상하고 즐기면서 우리문화의 本鄕을 되새겨볼수있는 계기로 여겨진다. 각박한 도시생활과 산업사회의 황량한 정서를 달래줄 舊正시즌 같은때 자녀들의 손을 잡고 할아버지들의 솜씨와 멋을 보여주고 가르치는것도 뜻있는 일이 될것 같다. 〈張英淑기자〉

樹話 미공개 과슈 佛서 出版

未亡人이 작년에 45점모아 추상으로 기운 과도기作品

空間1월호에 번역詩곁들여 國內소개

◇金煥基 화백

樹話 金煥基화백의 미공개 과슈(불투명수채화)들이 국내에서 소개됐다. 미술전문지인 「空間」1월호는 樹話가 스케치북으로 남겼다가 작년에 파리에서 화집으로 소개된 과슈45점중 6점을 컬러로 보여주고 이 그림에 써넣은 金鄕岸여사(수필가)가 파리에서 정리한 「煥基파운데이션」이 작년6월 화집으로 내놓았는데 이화집은 그림마다 부이외르의 시가들어있어 樹話의 작품을 詩정신으로 꿰뚫어 보이고있다.

『꿰뚫어본 한 화가의눈/기도한다 (삶의 쉰 목소리/꼼짝못하게되는/암흑에 찬 파렴치한 火焰과도 같은…)。

「空間」은 또 작년11월실시된 제1회 煥基파운데이션 美術公募결과를 싣고있다。

樹話의 예술세계를 기념하기위한 이 미술공모전은 회화건 조각이건 가리지않으나 상금이나 트로피같은것이 없는것이 특색이다。예술은 인간의 정신력으로창조되며 따라서 예술가들에게 상을주거나 예술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할수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래서 공모자체도 소규모적이고 「상」이 아니라 「입선」만 있어 관심있는 사람들에게만 눈에 띄고 있다。

이 공모전의 혜택은 입선작을 파리나 뉴욕등지에서 전시해주는 정도。

이번 공모에서는 프랑스의 화랑경영인 E·푸렐스테르씨와 H·풀르맙이 선정위원으로 나서 在佛화가인 秦惟英씨와 조각가 朴忠欽씨및 프랑스화가 크리스티언·파로디등 3인을 선정했다。

작년 11월3일부터 10일동안 실시된 이 공모심사는 동양적인것을 발굴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29세의 젊은 여류인 파로디는 西歐작가이면서도 碑文같은 고요함을 느끼게하는 「가냘프고도 중후한」화풍으로 입선의 영광을 안았다。

또한 秦惟英씨(36)는 서울美大를 나와 1971년 마르세유의 살롱·드·프로방스에서 열린 「청년작가전」에 참가한것을계기로 프랑스화단에 진출했는데 그의그림은 색채의다양성이특징이다。

그와 동년배인 朴忠欽씨는 역시 서울美大출신으로 國民大강사를 거쳐 75년 부터 파리에 거주하고있는데 마치다도해를 연상케하는 그의석고작품은 풍만하고도 날렵한 曲線을 보여주고있다.【平】

美術話題

었던 프랑스시인 클로드·부이외르의 시를 번역소개한 특집「恍惚한 한줌기 빛」을 싣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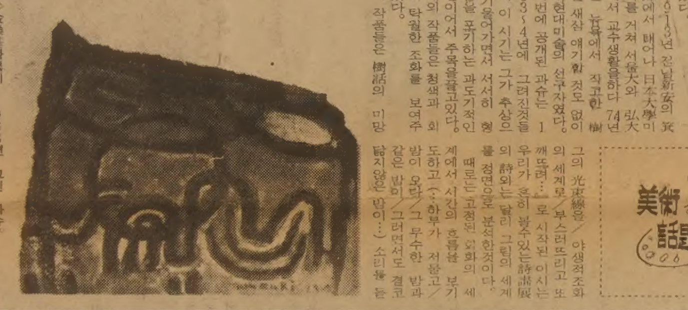
1913년 전남新安의 箕佐島에서 태어나 日本大學 미술과를 거쳐 서울大와 弘大등에서 교수생활을하다 74년 7월 뉴욕에서 작고한 樹話는 새삼 얘기할 것도 없이 한국현대미술의 선구자였다。

이번에 공개된 과슈는 1963~4년에 그려진것들인데 이 시기는 그가 추상으로 기울어가면서 서서히 형상성을 포기하는 과도기적인 기간이어서 주목을끌고있다。

개개의 작품들은 청색과 회색의 탁월한 조화를 보여주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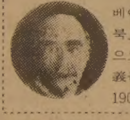
이 작품들은 樹話의 「미망을 담지않은 밤이…」 소리들은 같은 밤이/그러면서도 결코 밤이 오다(… 하루가 저물고/ 도하고(… 그 무수한 밤과 계에서 시간의 흐름을 보기 때로는 고정된 원화의 세

「그의 光束線을/야생적조화의 세계로/부스러뜨리고 또 깨뜨려…」로 시작된 이시는 우리가 흔히 볼수있는 詩畵展의 詩와는 달리 그림의 세계를 정면으로 분석한것이다。



◇金煥基화백이 1963년 그린 과슈。

名言



英國의 小說家, 詩人。봄베이서 남。少年小說「정글북」등 印度를무대로한작품으로 유명함。英國의帝國主義를 찬양한 것들이 많다。1907년 노벨文學賞 수상。

모든 나라의 國民은 종국엔 그들의 過去의 그림자를 닮아간다。

國民은 자기나라의 過去를 닮아간다

키플링 〈1865~1936〉

「東은東, 西는西, 영원히 마주칠 날 없으리」란 詩句로 알려진 키플링(Kipling Joseph Rudyard)의 이 말은 한당한것같다。실제로 그들은 스스로의 그림자를 닮아가는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닮으려 노력하기때문에 英國人들은 불덕의 이미지와 스스로의 끈질긴 歷史가 끊임없이 그들머리속에 있으므로 끈기있는 국민이되려고하며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돼갔다。

소련은 極東에 있어서나 地中海방면에서나 帝政러시아 時代의 목표에 집착해있다。

프랑스에선 아무리 權力의 지방분산을 떠들고있으나 헛일이다。

로마時代에 형성된 本能에 따라 루이14世가, 國民公會가, 나폴레옹이 항상 국민전체의 家族的構成으로 잡아당기고있다。

즉 이것이 歷史에서의 變치않는 것이다。未來를 예측하기위해선 이 變치않는것을 알고있어야한다。

이렇듯 時間과 더불어도 變치않는것이 있는법이다。

흔히 過去에있었던 일이 전혀 같은형태로 다시 나타나지않는다는말은 옳다。

그러나 過去는 現在에 그 그림자를 投影하고 있다해야 할것이다。

키플링은 어린시절을 印度原住民의 유모아래서 보내고 6세때 英國으로 돌아왔으나 12세가돼서야 비로소 학교에 들어갔다。大學과정을 밟지않은채 다시印度로 돌아가 라호도博物館長이던 부친의 주선으로 그곳의 新聞社記者로 들어가 저널리스트가된다。

그간에 쓴 詩를 모아 첫詩集과 小說集을 발간, 日本 美國등지를 여행하고 돌아와 題材를 印度 海洋 정글 野獸등에서 취재한「정글 북」등 많은 단편소설을 발표했다。

印度의 군대생활을 묘사한 詩集「兵營의 노래」와 「일곱바다」는 당시의 大英帝國主義의 풍조에 호응한것으로 환영받았고 라마僧을 따라 여행떠나는 「고아의 이야기」는 성공한 첫 장편소설이었다。

그러나 末年엔 評이나빠 不遇한가운데 죽었다。

他界26년만에 나온 朴寅煥 추모文集

文學話題

文友16명이 遺稿모아 「歲月이…」펴내

破格과 鄕愁를 共有한 詩風

50年代의 「모더니즘」이끌어

「모더니즘」「조니·워커」「조지·거시윈」등에 탐닉했던 시인 朴寅煥。그는 우리나라 詩史에 모더니즘을 펼친 스타일리스트이며 당시 한국 詩壇을 화려하게 누빈 멋쟁이였다。지난 56년, 31세의 청청한 나이에 세상을 떠난 朴寅煥은 모더니스트다운 정신적 귀족주의로 일관되는 짧은 生을 살아 갔가지 화제에 싸여 이야기되는등 復古調의 묘한 鄕愁를 일으켜 주는 시인이다。

朴寅煥이 쓴詩「歲月이 가면」은 노래로불리어져 숱한 로맨티스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에대한 일반의호기심을 부추키기도 했다。『지금 그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로 시작되는 이유명한詩의 제목을 그대로 따서 생전에 그와 交流했던 16명의 文友들이 朴寅煥의 문학과생활을 회상한 책「歲月이가면」이 최근 묶여져 나와 그의옛 모습을 다시 그려내고 있다。

朴寅煥은 26년 江原道 麟蹄군에서 출생, 아들을 의사로 만들고 싶어한 부친의 뜻에 따라 관립평양의학전문학교에입학했으나 해방직후 의학공부를 중단하고 서울에와 현재 낙원동거리에 서점「마리서사(茉莉書肆)」를 냈다。평소 심취했던 프랑스의 여류화가 마리·로랑생의 이름을 따서 서점의 이름을 지을 만큼 그는 서양의 文物에 깊이 빠져있다。

상당히 조숙해서 학생시절부터 영화, 詩, 繪畵등에 관해 넓은 관심을 가지고 닥치는대로 자료와 책을 구해 읽고 스크랩해 두곤했다。20세의 어린나이에 서점을 차린것도 영화, 繪畵, 文藝등에 대한 왕성한 食慾을 스스로 만족시키기 위한 한 방법이었다。그는 이서점을 내는동안 서점을 드나든 金光均, 李泰來, 張萬榮, 朴泰鎭, 박영준, 金璟麟등과 사귀게 되고, 역시 손님으로 책을사러 오던 進明출신의 李丁淑여사를 만나 연애, 23세의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다。

21세에 「新天地」지에 詩 「南風」「거리」등을 발표해서 문단에 데뷔, 당시 한국시에서 極限的인 兩大흐름을 가고있던 이데올로기詩와 抒情詩를 벗어나 詩의 모더니즘운동에 몸을 던졌다。그당시 모더니즘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기위해선 그룹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朴寅煥은 오랜친구인 金璟麟, 金洙暎, 林虎權, 梁秉植등과 함께 同人 新詩論을조직, 동인지「新詩論」을 꾸며내고 동인들의 공동시집「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합창」을 발간했다。

그는『그시대에 가장 잘팔리는 작품은 가장 뒤떨어지는 작품』이라고 역설하며, 공동시집의 表題에서도 느껴지듯 도시와 지식인들의 詩를 써나갔다。그의 모더니즘은 미국의 현대작곡가 조지·거시윈를 노래하고 도시의 메커니즘을 노래한 의 음악을 높이 평가하여 감각과 의식의 세계로 자연을 새로 조명하여 현대문명의 機器를 대담하게 도입해서 신선한 감각과 이미지를 나타내려고 노력했으며 어떤기교나 형식에서 벗어나기위해 破格을 서슴지않았다。이같은 그의 초기적 熱氣때문에 그의 初期詩는 미처 걸러지지 못한 생소한 부분이 적지않은 亂雜을 당했고, 자연과고 감각적인 세계에 안주하면서 이데올로기를 至上課題로 삼았던 시인들로부터 집중적인 비판의 소리를 받았다。

로 평면적인 표현방식에 의해 詩를 쓰고 있던 시인들로부터 「난해시」라는 비판을 들었다。朴寅煥은 이 비판에도 굽히지않고 더욱 기양양하게 각종 신문·잡지에 모더니즘에 대한 그의 論說과 是非를 계속 써나갔다。

어느한 직업에 오래 머물지못했던 그는 「마리」서점의 문을닫고, 「京鄕新聞」과 「自由新聞」社에서 수개월간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영화평을써서 생활을 꾸리기도했다。20대 후반부터는 自己에 대한 意識의 深度가 깊어지면서 아름다운 詩를 많이 발표했다。그의 대표작 「歲月이 가면」과 「木馬와 淑女」는 모두 이시기에 쓰여졌다。

詩 「木馬와 淑女」에도 버지니아·울프, 페시미즘(비관주의)등 …

그의 모습을 털어내지 않고 있으나 『인생은 외롭지도 않고 그저 잡지의 表紙처럼 통속하거늘/한탄할 그 무엇이 있어 우리는 떠나는 것일까/木馬는 하늘에 있고/방울소리는 귓전에 철렁거리는데/가을 바람 소리는/내 쓰러진 술병속에서 목메어 운다』와 같이 참신하고 아름다운 論謠風의 이미지를 보여주었다。그는 55년에 자신의 「選詩集」을 내며 後記에서 『나는 8년간 詩를 써왔다。내가 태어난 이시대는 어떤 시대보다 혼란해서 信條치고 동요되지 않은것이 없었고, 敎理치고 마침내 경험을 드러내지않은것이 없었다。이처럼 나의 모든 詩의 작용도 여러번 변했으나 본질적인 나의 신념만은 지켜 온것으로 생각한다』고 써서 자신의 詩가 변화발전한것을 …

그는 죽기 이전에 죽음에 대한 이미지가 담긴 詩를 상당히 많이 썼다。「밤의 未埋葬」「미스터·모의 生과死」등은 센티멘털할 정도로 죽음을 美化한 詩며, 죽기 사흘전에 쓴 「죽은아폴론」은 죽음에 대해 아무런 두려움도 느끼지 않고 그 침착하고 불길한 그림자를 묘사한 최후작이 됐다。그는 연속적인 음주로 56년3월20일 심장마비를 일으켜 숨을 거두었다。

◇詩에서도 생활에서도 모더니스트로서의 멥시를 그대로 나타냈던 詩人朴寅煥의 30세되던해 모습。

「마인드·컨트롤」…실바博士에 듣는다

40시간에 습득할수있는 自己精神조절법

스트레스·피로 말끔히 씻어

右側腦도 작동시켜 潛在능력 활용

잡념없이 완전한 平靜 찾을수있다

마인드·컨트롤 이란 무엇인가? 우리말로 정신조절법 또는 정신입도수도법으로 부르는 이 코스를 마친 사람은 정신능력이 월등히 개발되고 창의력이 증진된다는데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마인드·컨트롤로서 가장쉽게 실천할수 있는 방법은 잠자고 싶을때 수면제없이도 잠들수있고 자명종없이도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깨어날수 있다는것。

또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에서 생기는 편두통은 물론 고질화된 현대의학으로도 신통한 방법이 없으나 마인드·컨트롤로서 예방할수 있으며 피로감에서 거뜬히 벗어나 항상 명쾌한 머리를 유지할수 있다고한다。

이 신기한 결과를 단 40시간내에 습득할수 있다는 정신수련방법을 창안한 미국의 과학자 호세·실바박사(67)의 동생이며 국제실바마인드·컨트롤본부 부총재인 후안·실바박사(65)가 마침 방한중(2일~9일까지)이어서 그의 설명을 들어보았다。

마인드·컨트롤방법은 당초 어린아이들의 IQ를 높이기위한 연구에서 비롯됐으며 과학문명이 발달할수록 정신차원의활용도 목이 말라있다고 그는 말머리를 꺼낸다。

이같은 요청에따라 정신수련방법으로 등장한 실바마인드·컨트롤은 어디까지나 정신응용학이라는 과학임을 강조하는 후안·실바박사는 최면술이 무의식상태에서 이루어지는데 반해 마인드·컨트롤은 의식상태에서 두뇌가 작동된다는 점이라고 분명히구분한다。

사람들이 외부의식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을 깊이 숙고하고 명상에 잠기는과정을통해 내부의식까지 끌어내려 잠재능력을 크게활용하는것이 바로 마인드·컨트롤이고 이 수련을 쌓게되면 잡념을 떠난 평정의식상태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자연적으로 의식상태를 바꾸는 이 방법에 의해 정신과 육체가 좀더 자유로와지고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할 불안 초조 근심걱정등 각종 신경성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럼으로써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고 한다。

실바박사에 의하면 사람의뇌는 좌측 우측 두개로 나누어져있는데 일상생활 즉 외부생활에서는 좌측만 작동하고 있다는것。우측뇌도 마저 작동시켜 내부의식수준으로 내려갈수록 인간속에 잠재하고있는 능력을 발휘할수있게되고 이것은 곧 현대과학의 산물임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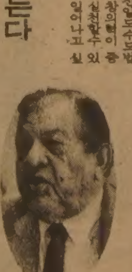
가톨릭신자인 실바박사는 마인드·컨트롤로서 깊이 숙고하고 명상에 잠기는 과정을 통해 종교적인 경지와 신앙이 두터워질수 있다고 시인한다。

정신조절법을 배우고 수련한 사람들이 수련하기전보다 더 종교적인 차원에 적할수있기 때문에 무종교주의자나 어떤종파를 막론하고 신앙을가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고 말하는 실바박사는 그러나 정신수련방법이 종교와 직접적인관계는 없다고 단정한다。

정신력응용을 엘리베이터에 비유하여 틀에 박힌 기계적 생활을 계속하기쉬운것이 인간생활이므로 평소 절반도 사용하지 않는 두뇌를 내부의식 수준에서 엘리베이터문을 활짝 열고 무한한 정신력을 활용할수 있지않느냐는것이 그의 거듭된 주장이다。

미국텍사스에 본부가 있는 실바마인드·컨트롤은 전세계 50여개국에 상설코스가 설치돼있고 3백만이상이 수강한것으로 돼있다。

◇돈·보스코 청소년센터원장 알프레도神父가 잠재의식을 더 깊이 내리는 방법을 강의하고있다。



◇실바마인드·컨트롤본부 부총재인 후안·실바박사가 회원특강을 위해 내한, 9일까지 머문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861

한국일보

블론디 딘 영 作

"뭐가 잘못됐습니까, 사장님?" "마누라가 어젯밤 집에 너무 늦게 들어왔다구 야단법석이야" "그렇다면, 사장님이 필요하신건 댁에 갖고 들어가실 선물입니다" "내가 필요한건 집에 입고들어갈 방탄조끼일세!"

한국의 妓生 ②

侍寢의 代役

글 全完吉
그림 李良友

古朝鮮땐 예사로 아내나 딸에게 손님 侍寢케 하고
新羅→高麗→朝鮮朝 초기까지 이어져 숱한 話題낳아

♣存置理由—女樂·身役

한국의 기생이 고려초에 제도화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왜 고려초에 기생이 제도화되었을까? 서양에서처럼 本能的인 欲求를 해소하기 위해서인가.

이 의문에 대한 해답으로 조선 조정에서 자주 있었던 기생폐지 논란 가운데 存置해야 한다는 주장을 간추리는 것이 좋겠다.

世宗이 대신들에게 州邑의 娼妓를 없애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다. 모두들 없애야 한다고 대답했다. 좌중에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사람은 허조(許稠·1369~1439·文敬公·좌의정)뿐이었다. 그가 말할 차례였다. 그는 매우 근엄하고 자녀교육에도 엄격하여 음양(陰陽)을 모르는가 보다고 소문난 터였으므로 그 역시 없애야 마땅하다고 대답할 줄 알았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정반대였다.

『남녀간의 본능이란 금할 수 없읍니다. 만일 주읍의 창기를 모두 없애면 젊은 사신이나 조정의 관리들이 모두 불의의 일을 저질러 여염 여자들을 강탈할테니 영웅호걸들이 죄를 얻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의 반대가 하도 강렬하여 폐지논의가 취소되었다. <慵齋叢話>

연산왕이 기생을 擴産하고 이들과 淫風에 젖었으므로 연산의 뒤를 이은 中宗은 이에 대한 反作用으로 기생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에 편승하여 1519년 봄에 臺諫에서 女樂(기생) 폐지를 건의하는 바람에 찬반 논쟁이 일어났다. 그러나 궁중 잔치에 기생을 동원하지 않으면 잔치가 어렵다 하여 없애지 못했다. 즉 기생은 歌舞音에 능한 藝人으로서 존재가치를 부여받고 있다. <燃藜室記述>

비단 궁중의 잔치뿐만 아니라 王의 즉위·世子冊封·公主下嫁儀와 같은 의식 그리고 각종 제사에도 반드시 동원되었으며 외국의 사신을 접대하는 연회에도 기생은 필수 존재였다.

조선시대의 文官이나 武官은 邊方으로 발령받았을 때 가족을 동반하지 못하는 관례를 준수했다. 軍卒도 마찬가지였다.

한번 外方으로 나가면 3년임기가 예사였는데 文武官은 이것이 매우 고통스러워 士兵들이 情慾을 해소하지 못하여 포악해지고 명령을 어기는 예가 많다고 빗대어 자신의 妻를 동반하려고 자주 건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건의는 한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文武官은 邑妓와 어울리고 軍卒은 藥女와 어울리도록 눈감아 주라고 넌지시 지시하였다. 그렇지만 邑妓가 있어 文武官은 정욕을 해소할수 있지만 아전이나 군졸은 遊女(娼婦)가 없어 애를 먹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유가 解語花(妓生) 탄생배경으로 충분한가. 그렇지 않다. 더 커다란 진짜 원인인 한국인의 관습이 있다.

♣한국의 良俗—侍寢

한국인들은 손님을 厚待하는 良俗(?)을 아주 오랜 예부터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다.

어떤 동기에서든 손님을 가장 厚待하려 한다고 가정해보자. 어떻게 접대할 것인가. 지금도 그렇지만 옛 한국인들은 섹스接待가 최대의 「供饋」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였다. 이것이 기생이 제도화된, 천년동안이나 기생제도가 존속된 이유다. 그 그림자는 지금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外地 손님을 맞으면 客苦를 풀어줄 방법부터 궁리하지 않는가?—後述豫定)

중국의 기록(漢書 地理志)을 보면 古朝鮮시대의 한국인들은 「손님을 맞으면 아내로 하여금 모시고 자도록 한다」하고, 태자 丹이 용사들을 손님으로서 후대하지 아름다운 후궁들은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 하였다. 이 기록을 해석하면 단이 후궁들로 하여금 용사를 위하여 侍寢시켰다는 뜻이다.

이러한 시침접대는 신라에서도 행해졌다.

文武王(在位AD661~681)이 그의 아우 車得을 재상으로 삼으려고 民情시찰을 보냈다. 암행길에 나선 차득은 신분을 감추기 위하여 검은 옷을 걸치고 비파를 들어 떠돌이 居士차림을 했다.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다가, 무진주에 이르렀다. 그의 행색이 초라한 탓에 모두 예사 사람으로 보아 넘겼으나 安吉이라는 벼슬아치만은 예외였다. 그는 차득을 알아차리고 극진히 대접한다. 극진히 대접하기 위하여 밤에 세 아내를 불러 놓고 『오늘 밤에 거사 손님을 모시고 자면 나와 종신토록 해로하리라. 누가 접대하겠는가?』 하였다. 한 아내가 나선다. 종신토록 사랑해준다면 시침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차득은 안길의 아내로부터 섹스 접대를 받았고 안길은 그 덕으로 부귀영화를 누렸다. <三國遺事>

또 이런 이야기도 있다.

炤知王(在位 AD479~500)이 날이군에 행차했을 때 波路라는 사람이 딸을 바쳤다. 나이 열여섯살로 매우 아름다왔으며 이름이 碧花였다. 비단 옷을 입혀 수레에 앉히고 채색 비단으로 가려 왕에게 바쳤더니 왕은 이상스레 여겨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 그러다가 환궁한 뒤에야 생각이 떠올라 두세번 벽화의 집을 다녀왔다. 얼마 지나서는 아예 그를 데려다가 별실에 두고 끝에 아들 하나를 낳았다. <三國史記>

고려 태조 王建은 여러 차례 시침접대를 받았다. 고려를 건국하기전 泰封의 弓裔 휘하 장군이던 시절에 水軍을 이끌고 남쪽을 자주 공략했었다. 정주에 머무를때 그곳 부호인 유천궁이 자기 딸로 하여금 시침케 하였다(왕건은 시침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그날밤 獻身을 잊지 못하여 여승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맞았으니 그녀가 바로 후날 神惠皇后다).

또 나주에서도 다련군의 딸이 시침하였다. 왕건은 다련군의 딸 오씨와 잠자리에 들긴 하였으나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신분이 미천하고 이미 아내가 있다는 이유로 膣外射精을 했다(그러나 오씨는 돗자리에 흘어진 정액을 훔어 넣어 임신을 했고 끝내 왕건의 아내가 되어 莊和王后로 책봉되었으며 낳은 아들이 惠宗으로 즉위했다). <高麗史>

家族同伴 불허해 外職 관료에겐 꼭 必要하던 存在
代役 접대용으로 처음 制度化…千年이상 존속돼 와

고조선시대의 한국인들은 예사롭게 아내나 딸마저 손님방에 들게 하였지만 신라시대에 이르러서는 흔치 않은 관습이 되었으며 신라말기—고려초에는 시침하는 여자나 시침받는 남자, 양쪽이 모두 부담스럽게 여겼던 것같다. 유천궁의 딸이나 다련군의 딸이 시침한 남자를 하룻밤 봉사의 상대로 여기지 않고 깊은 인연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왕건 역시 하룻밤 情事의 후유증을 염두에 두고 있다. 도덕관념의 변화에 따라 수치로 여기는 것은 당연하며 하룻밤의 遊戱로 잊어버리기 어렵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폐단을 실제로 경험했던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면서 신라시대부터 있었던 [illegible] 시켜 각 관아에 배치해 두고 아내나 딸의 역할을 대신하게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다시 말하면 기생은 아내나 딸의 侍寢代役으로서 존재가치가 크다.

조선시대에 기생이 없는 고을에서 시침문제로 시끌 법석을 떤 사건을 보면 기생이 왜 필요했나를 실감하게 된다.

♣밤에 단장하는 까닭

고려를 멸망시키고 朝鮮을 건국한 李成桂는 대부분의 高麗制度를 혁파하였지만 기생제도는 그대로 襲用하였다. 기생의 필요성이 고려나 조선이나 같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성계도 왕건처럼 시침접대를 받았었다. 조선을 건국하기전 左侍中 慶復興(?~1380)의 집에 간 일이 있었다. 복흥이 맞아들여 그 아내로 하여금 극진하게 대접하게 하였다. 이때의 후대에 보답하기 위하여 이성계는 훗날 경복흥의 자손은 천한 자라도 軍役을 면제해 주었다. <燃藜室記述>

또 중국에서 사신이 오다가 국내에서 유숙하게 되면 집주인이 아내나 첩, 딸이 시침케 하였으며, 耽羅(제주도)에서는 육지에서 건너오는 병사들에게 시침봉사를 했다는것이다.

그런가하면 官妓가 없는 고을에서 시침을 고민하던 끝에 衙婢를 盛粧시켜 수청시켰다 하여 말썽된 일이 있다. 황해감사가 延安을 巡歷할 때 妓生이 없으므로 官衙의 여종을 단장시켜 수청들게 하였는데 이것을 臺諫이 문제삼아 단핵하려 하였다. 이 기미를 안 연안부사가 편지 한장을 써서 아들에게 주며 한양의 재상을 찾아가 구명운동을 벌이게 한다.

그러자 재상이 부사의 아들을 힐책한다. 어찌 관례를 어기고 『멋대로 官婢로 하여금 기생대신 나그네를 대접하여 말썽을 일으키느냐』 하고는 마침 집에 놀러온 대간을 설득시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illegible]錄>

이 사건을 보더라도 손님을 극진히 접대하는 방법이 시침이었고, 시침을 위한 기생이 아내(첩)나 딸대신 절대적으로 필요했음을 알게 된다.

그런데 덧붙여 둘 것은 손님접대(侍寢)의 흔적이 각 가정에 두텁하게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가난한 선비가 자기 가정에서는 검소하게 생활하다가 손님을 맞으면 분에 넘치도록 盛饌으로 대접하고, 또한 가난한 여성이 집에서는 남루한 옷을 입고 있다가 손님이 찾아오면 화장을 한다. 옷을 갈아 입는다 하고 야단이다.』

이는 李瀷(1681~1763)의 한탄이다. 이익의 한탄은 무엇을 말하는가?

귀하거나 낯선 손님일수록 재빨리 화장하고 옷매무새를 고치는 풍습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데 이는 손님에게 최대의 경의를 나타내는 행동인 것이다. 더우기 우리나라 여자들은 저녁에, 특히 잠자리에 들 때 반드시 화장하는 버릇이 있다.

그래서 남편이 예고없이 손님을 동반하고 귀가하면, 집안을 청소하지 못했고 화장하지 않은 몰골을 보이게 됐다고 화를 낸다. 주부들은 식사준비가 안된것보다 그런 점을·수치로 여긴다.

<다음호에 계속>

宗敎

金壽煥추기경 文學강좌

人間의 길

—성바오로 수녀회 主催

◇문학강좌에 첫 연사로 나온 金추기경이 「人生의 올바른 길」을 역설했다.

하느님과의 一致가 참된 人生의 行路
超越的 절대자存在 인정해야…平等은 法규정아닌 本性에 근거

金壽煥추기경은 지난 9일 하느님과의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 참된 人生의 길이며 만족을 찾는 길이라고 말했다.

金추기경은 성바오로서원 3층 강당에서 열린 성바오로 수녀회주최 월례 문학강좌 신년 첫 강좌이며 1백회기념 강좌에 강사로 참석, 「인간의 길」을 주제로 강연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고 과학 문명의 발달은 인간신비의 많은 부분을 해명하는데 성공했지만 그럴수록 더 많은 신비와 외경을 느끼고 있으며 과학이 종국적으로 인간의 신비·인간의 본질을 명쾌히 해명하리라는 전망도 보이지않는다고 강조했다.

첫번째 문학강좌이기도 한 이 강연에서 金추기경은 진화론의 많은 부분은 논리적으로 수긍이 가지만 기본적으로 무생물에서 생물로의 진화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간의 조상이라는 유인원류는 삶의 의미를 추구하거나 존재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지않는다고 지적, 여기서 초월적이고 창조적인 절대자의 존재를 인정할때 모든 의문은 저절로 풀리게 된다고 말했다.

金추기경의 강연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인간의 길 또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본질적 물음은 인간이 의식을 가진 때부터 제기돼 온 오래된 의문이다.

동양철학은 인간이 인간이라는 전제위에서 출발하지만 서양철학은 이 문제를 구명하려는데서 출발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탐구한 끝에 많은 학설도 발표했지만 아직도 명쾌한 해답은 않고있다.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해 처음으로 인간의 본질을 정의하려 했지만 이 말은 생각한다는 인간의 위대함과 갈대라는 허약함의 양면성을 강조한 것일뿐 본질적인 해답은 아니며 이후 인류학·사회학·심리학 등 대부분의 학문이 인간과의 관계를 구명하려했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도 정의를 내리기는 커녕 아리스토텔레스때보다 오히려 후퇴한 감이 있다.

또 과학만능의 사조는 과학으로 인간을 밝히려 했지만 정신적 실체로서의 인간에대한 답을 내리기는 커녕 물체의 최소단위라는 원자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소우주로 불리는 원자를 궁국적으로 알아내리라는 전망도 불투명하다.

하물며 대우주라는 천체를 놓고보면 과학은 신비의 해명과 함께 오히려 신비와 외경을 확대시켜 왔다.

인체를 연구하는 의학도 고래로 수백만명의 의학박사를 배출하면서 인체를 연구해 왔으며 가히 메스가 가해지지 않은 부분이 없다고 할만큼 많은 연구와 해부가 가해졌지만 이역시 원자로 구성된 물체 또는 생물학적으로 한정돼 있는 인체를 명쾌히 해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구렁 전망도 보이지 않는다.

인체를 다 해부해도 영혼도 마음도 볼 수 없다는 식이다.

진화론도 상당부분 수긍이 가지만 논리적으로 무생물에서 생물은 나올 수 없으며 인류의 조상이라는 원숭이들의 경우 생물학적 구조는 인정이 돼도 존재와 동물의 차이·동물적인 것에서 정신적인 것으로의 전이는 설명되지 않는다.

결국 초월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는 이 모든 의문을 풀수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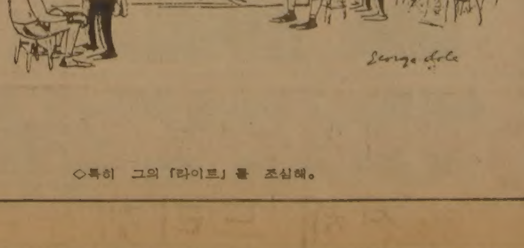
한편 많은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말하고 심지어 유물론자·무신론자까지도 인간존엄을 말하고 있지만 그 근거는 무엇인가?

개개인을 뜯어보면 지능의 차이·능력의 차이·외모의 차이·신체의 차이등 오히려 차이만이 눈에 띈다.

그렇게보면 인간평등이라는 것은 법이 규정해서가 아니라 본성에 있어 평등이 존재해야 성립하며 여기서 인간존엄을 긍정한다는 의미는 믿음이고 이 믿음은 인간이상의 어떤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

그래야만 인간의 존엄성·평등성이 납득되고 받아들여질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걸작 만화



◇특히 그의 「라이트」를 조심해。

◇속임수 「물탔지」。

移民과 여행자를 위한 생활英語

담당 민병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초면이건 구면이건간에 상대방에게 가장 부담없이 대화를 이끌어나갈수 있는말 중에 하나가 바로 날씨에 관한 얘기이다.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굉장히덥습니다」It's very hot「이 더위를 견디시겠어요?」 Can you stand this hot weather?「견디기어렵습니다.」 No, I can't stand this hot weather. 이와같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질수 있다.

A :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B : I think it's going to rain.
A : What's the temperature now?
B : I'd say it's about thirty five.
A : Is rain predicted?
B : Yes, it is.
A : 오늘날씨가 어떻습니까?
B : 비가 올것 같읍니다.
A : 지금 몇도나 됐지요?
B : 약 35도쯤되리라생각합니다.
A : 비가 온다고 예보하던가요?
B : 예, 그렇습니다.
※주 stand : 견디다. 참다 Can you stand the pain? 통증을 견딜수 있는가?? Predict : 예보하다. 예상하다.

I'LL SHOW YOU.

잠겨있는 캐비닛 문을 아무리 열려고해도 열리지 않는다. 이때 보고있던 친구가 「내가 여는법을 가르쳐 줄게」 I'll show you.라고 하였다. 「보여주다」「가르쳐 주다」 하는데는 바로 이 표현을 사용한다.

상대방이 「운전하는 법을 모르는데요」 I don't know to drive. 했을때 「제가 가르쳐 드리죠」 I'll show you. 또한 「화장실이 어딘가요?」 Where can I wash my hands? 라고 묻는 경우 「제가 안내해드리죠」 I'll show you. 라고하면 된다.

또한 타주에서 방문한 친구에게 「시내구경을 시켜 드리죠」하는 경우는 끝에 around만 붙여서 I'll show you around downtown. 하면 된다.

A : Excuse me. I wonder if you can help me.
B : I'll try.
A : Can you tell me where the nearest drug store is?
B : Sure. In fact, I'll show you.
A : Thanks.
B : Not at all.
A : 실례합니다. 저를 도와주실수 있으신지요.
B : 도와드리도록 힘쓰겠읍니다.
A : 여기서 가장 가까운 약방이 어디있는지 말씀해줄수 있는지요?
B : 그럼요. 실제로 제가 가르쳐 드리죠.
A : 감사합니다.
B : 천만에요.
※I wonder if~ : 할수 있을는지 궁금하다.
in fact : 사실은, 실제로
【발음】 around 「어라운드」 이같이 끝의 D를 파열시킬 필요없이 문장속에서 발음될때는 「어라운」만 발음된다.

본 난의 담당 「민병철 생활영어」책은 이중언어 교육처및 교포들의 영어교육처수 곳에서 사용하고 있다.

구입처 :
B. 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S.A.
전화 : (312) 966-4050
책 : 제1권(12불) 제2권(12불) 제3권(12불)
카세트 : 1권용(33불) 2권용(38불) 3권용(38불)
비디오 : BETA(30불) VHS(65불)
※U.S 마니오더에 한합니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連載小說

스물세살의 자서전 ―人間市場―

金洪信 作
崔然石 畵
(58)

『땅깨비 애들이 어떻게 알고 지하실까지 들어갔니?』

『같이 먹고 살자는데야 할 말 없죠.』

『그 뒤로 경비나 철저하게 세웠나 모르겠다. 땅깨비가 등하면 달려들텐데.』

『지난번엔 이쪽에서 먼저 무니까 그랬죠, 머.』

나는 그 순간에 너구리작전을 생각했다. 비상문 앞에 불을 지르고 비상문에서 차례로 낚아채면 쉽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내가 되긴 싫었다. 정당한 방법으로 승부를 보고 싶었다. 마상 맞붙었을 때 상대방이 비겁하게 나오지 않는 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요 앞에 차 세워놔도 되니?』

지난줄거리

카페 아담에 가서 정보를 캐낸 춘삼이는 곧장 한남동 잔솔밭으로 갔다. 거기서 종로 두꺼비로 행세하면서 여자에게 접근하여 지하실의 경비와 비상구의 위치등을 상세하게 알아낸다. S주식회사 상속자 성주하과 도치가 수향이를 납치해 간 것을 확인할 길은 없지만 우선 도치를 잡아야만 했다. 땅깨비파가 한번 훑고 지나갔다는 정보도 알아냈다.

『그럼요.』

『이왕 늦을 거니까 운전하는 녀석 저녁이나 먹여야겠다.』

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자가 팔소매를 잡고 말했다.

『미스터 김 보내면 돼요.』

『뭐 심부름 시킬 것도 있고 해서 그래.』

나는 눈치껏 잔솔밭을 빠져나왔다. 골목길에는 승용차들이 한켠으로 세워져 있었다.

온회색 피아트가 눈에 띄었다. 눈깔 크고 짧은 치마 입은 계집애처럼 날렵하고 깔끔해 보였다. 번호를 확인한 나는 바람구멍을 열어놓았다.

바람 빠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그 근처에 있는 두대의 차도 마저 바람을 ■ 버렸다.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도치 패거리의 기동성을 없애 둔 것이었다.

잔솔밭 안채를 건너다 보았다. 넓지 않은 마당이었지만 손질이 잘 되어 있었다. 담을 훌쩍 뛰어 넘었다. 조심스럽게 담장 밑으로 기어갔다. 표창을 꺼내 짐작이 갈만한 곳을 자꾸 쑤셔보았다. 무엇인가 움직이는 게 있었다.

나는 뒤돌아 섰다. 토실토실하게 살찐 강아지 한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쫓아왔다. 강아지는 손을 내저어도 자꾸 꼬리를 흔들며 쫓아왔다. 강아지를 안아서 가슴에 안았다.

사람이 ■ 그리운 강아지 같았다. 내 얼굴을 자꾸 핥았다. 짖지 않은게 고마와서 쓰다듬어 주었다. 꼬리가 연신 흔들리고 있었다.

표창 끝에 걸리는 금속음을 들었다. 그리고 그 소리나는 주위를 살펴보았다. 비상구자국이 드러났다. 걸은 잔디가 깔려 있어서 쉽게 구분할 수 없었다. 도치의 치밀한 성품을 알 것 같았다.

나는 정원석을 ■내어 조심스럽게 비상구 위를 덮기 시작했다. 웬만한 장사라도 비상구를 열고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았다.

다시 담을 넘었다. 강아지가 연신 징징거렸다. 별로 할일이 없다면 그 강아지를 옷 속에 넣어가지고 나왔을 것 같았다. 공중전화가 불빛 아래 애처롭게 서있었다.

『형, 납니다. 애들 두명만 보내줘요.』

『왜? 어렵겠나?』

『준비는 다 됐는데 혼자 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어요.』

『어떤 앨 보내래.』

『손 빠른 애들이면 더 좋아요. 올 때 철사하고 펜치 좀 갔다 줘요. 열댓명 묶어놔야겠어요.』

『어디로 보낼까?』

『잔솔밭으로요. 들어와서 입구에 서서 큰 소리로 두꺼비 찾으라고 해요. 그게 신호니까요. 내가 들어오라고 하면 전화줄부터 끊어버리게 해줘요.』

춘삼이 형은 대충 상황을 짐작한 것 같았다.

『차 필요 없냐?』

『야통증 가진 애 있으면 같이 보내요.』

『20분 내로 보낼께. 조심해라.』

『문 부술 때 쓸 연장도 좀 보내요.』

『알았다.』

나는 전화를 끊고 다시 잔솔밭으로 돌아갔다. 여자가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반겨 맞았다.

『난 뭔 줄 알았어요.』

『이 자식이 두꺼비 알길 우습게 아는구나.』

『그래서 살짝 내다보니까 전화하고 있던데요.』

『우리 같이 염복 많은 놈은 그게 탈이라구. 오늘 너 안 만났으면 몸 풀어줘야 할 여자 많았다구. 너 행복한 줄 알아.』

『피이…』

몸 풀 여자를 찾다 널 오늘 만난거야, 행복한 줄 알아
젖무덤이 그렇게 큰걸보니 남편 德 톡톡히 보겠구나

여자는 바람소리를 내고는 나를 끌고 밀실로 들어갔다.

『너 이담에 남편덕은 보겠다.』

『왜요?』

여자는 몸을 꼬며 물었다.

내 손은 여자의 가슴 속에 들어가 있었다. 내가 적어도 두꺼비라는 걸 의심나지 않게 하려면 이 정도의 능청은 떨어둬야 했다.

『이게 크면 남편덕 본대잖아.』

『아퍼, 살살.』

여자는 음탕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도 지하실 가서 대접받고 싶지 않니?』

『거기 오는 년들처럼 행복하면 한이 없겠어.』

『큰 형님한테 얘기해 줄테니까 한번 내려가서 서비스도 좀 받고 몸도 풀고 해라.』

『내 팔자에 무슨.』

여자는 시큰둥했다. 지하실은 도치의 돈벌이인 남창이었다. 남자창부 녀석들에게 돈 싸들고 오는 여자들, 욕정을 풀며 황후처럼 대접받고싶은 여자들을 환대하는 비밀스런곳이었다. 그곳에 오는 여자들은 남자들이 사우나탕의 밀실이나 창녀촌에서 받는 환대 이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맛보고 가는 곳이었다.

하나님. 지금 흥미진진하게 보고 계시죠? 세상 참 공평합니다. 사내들만이 으시대며 즐기는 걸 봐줄 수 없으니까 저런 남창지대까지 마련해 주셨으니 얼마나 공평하신 겁니다. 제가 호를 하나 지어드리죠. 하공평. 어떻습니까? 맘에 드십니까? 하긴 그래요. 사내들은 명분의 돈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고 여자를 살 수 있읍니다. 대낮에 점심 먹고 나가서 목욕한탕 하고 현금을 지불한 만큼의 쾌락을 산 뒤에 의젓하게 들어올 수도 있고 저녁에 술한잔 걸치고는 술김이란 핑계로 장화신고 오입 한번 해도 사내다우면 사내다왔지 바보 취급은 받지 않잖아요. 여자라고 그러지 말란 법 없잖아요. 꼭같은 사람 아녜요. 하나님이 애초 만들 때부터 남자편만 들었다는 것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여자라고 배알이 없는줄 아세요. 여자도 사람이다 이겁니다. 여자도 욕망과 쾌락과 즐거움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이 틀렸읍니까?

여자를 너무 깔보지 마세요. 알 거 다 알고 할거 다 할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남녀평등 몰라요?

내가 뛰어들어가 그 용감하고 존경할 만한 여자들 상판대기 좀 똑똑히 보여드릴테니 웃지나 마십쇼. 하나님 답게 침묵을 지켜달라 이 말입니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의 사내가 들어섰다. 가방을 멘 사내는 키가 컸고 골프백을 든 사내는 키가 작았다. 나는 얼른 시계를 보았다. 춘삼이 형이 약속한 시간이었다.

『두꺼비 형님 계십니까.』

키 큰 사내가 큰소리로 말했다.

나는 여자를 번쩍 들어 테이블 위에 앉혀 놓고 나왔다.

『여기다. 들어와라.』

나도 큰소리로 말했다.

두 사내가 손을 들었다. 나는 여자를 잡아 일으켰다.

『조용히 해. 떠들면 죽어. 비밀문으로 안내해, 어서.』

『왜 이래요. 큰형님 알면 어쩌려고.』

『잔소리 말고.』

『정신 나갔나봐. 큰형님 성깔 알면서.』

『정신 멀쩡하니까. 어서!』

여자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이 서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목을 비틀어 잡았다. 그녀가 소리를 지르며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다.

전화선을 끊은 사내가 다가왔다. 세명의 종업원이 뒤로 손목이 묶인 채 따라와서 비상벨을 가리켰다.

『차례차례 묶어서 밀실에 처넣어라. 비상벨은 그냥 둬.』

『손님들은요.』

『묶으면 안돼. 한방으로 모아놨다가 문이 부서지면 내보내.』

우리 행동이 쉽게 발각되지 않은 것은 밀실 덕분이었다. 모든 구조가 밀실로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가 눈치 채이지 않게 한방 한방을 다니며 종업원과 손님을 구분해서 갈라놓을 수 있었다.

『형, 다 끝냈어요.』

키 작은 사내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다.

『공구 가져왔지?』

『이거요.』

사내는 골프백을 열었다. 연장들이 가득 들어있었다.

얘가 저녁을 잘못먹고 온 모양이니 소화 좀 시켜주지
죽고 싶지 않은면 표창을 버려, 장난하면 눈깔 빼버려

『플래시는 옆구리에 차라.』

두 사내는 재빨리 내가 시키는대로 했다.

『넌 여기 지키고 넌 손님들 내보낸 뒤에 나를 따라붙어.』

『알았읍니다.』

녀석들은 재법 손이 빨라 보였다. 춘삼이 형이 챙겨서 보낸 것 같았다.

『그 비상벨을 누르고 땅깨비 애들이 왔다고 소리쳐!』

나는 화장실 안쪽에 붙어있는 문쪽으로 바싹 붙었다. 키 작은 사내가 연장을 꺼내들고 내 맞은 편에 붙었다. 키 큰 사내가 비상벨을 눌렀다.

인터폰 소리가 들렸다.

『뭐냐?』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걸직했다.

『땅깨비 애들이 세 명이나 와서 큰 형님 찾아요.』

키 큰 사내가 능청스럽게 말했다.

『가만 둬. 우리가 올라갈테니까.』

인터폰은 찰칵 소리를 내며 끊어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님들 모시고 나가라. 오늘 술값은 안갚아도 좋다고 해.』

『원님 덕분에 공짜술 먹었군요.』

키 작은 사내가 음흉하게 웃었다.

손님들이 재빠른 동작으로 나갔다. 철사줄로 묶인 종업원들이 체념한 듯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안에서 문 따는 소리가 들렸다.

키 큰 녀석이 종업원들 옆에 서서 뭐라고 지껄이고 있었다.

문이 벌컥 열리고 한 사내가 뛰어 나왔다. 키 작은 사내가 발목을 걸어 쓰러뜨렸다. 뒤따라 올라 오던 사내가 후다닥 계단뛰기를 했다.

『묶어놓고 따라붙어라.』

내 말이 끝났을 때는 벌써 사내의 손목에 철사줄이 감겨있었다. 종업원들의 철사줄을 풀어주고 싶었지만 괜히 시끄러운 일을 만들것 같아서 내버려 두었다. 쫓아나가 불량배들을 불러들인다든지 도치 패거리한테 연락이라도 했다간 일만 더 복잡해질 것 같았다.

계단을 성큼성큼 내려갔다. 지하실은 캄캄했다. 전기를 차단시킨 모양이었다.

『불 키고 밝은 낮으로 상면 좀 합시다.』

내가 이렇게 말했다. 안에서는 아무 말도 없었다.

『비상구는 잠겼소이다. 캄캄한 곳에서 괜히 코피 나는 일이 없도록 해봅시다. 여러 여자들도 있고 하니 말입니다. 도치 형, 불 좀 킵시다.』

그래도 아무 대꾸가 없었다. 입구에 잠복하고 있을 경비원들의 표정이 눈에 선했다. 도치는 이를 앙다물고 절사적으로 방어할 태세를 갖추고 있을 게 뻔했다.

『이렇게 비신사적으로 나오면 연기 좀 피울 수밖에 없겠소. 나혼자니까 우리 피차 얼굴 좀 봅시다.』

고요했다. 인기척이 없었다.

『그럼 할 수 없이 소방차 올때까지 불 좀 조입시다. 119에 신고함쳐도 전화선이 끊어져서 못하겠으니 양해하슈. 어이, 여기 석유통 열어라.』

키 작은 사내가 석유통을 들고 내 옆에 섰다. 녀석은 재미있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조위금을 후하게 보내드리리다.』

내 말소리가 지하실 안으로 흘러들어갔다가 반사되어 돌아왔다. 석유가 콸콸콸 흘러 내려갔다.

『석유냄새니까 좀 참으슈. 곧 성냥불도 보내드리겠소.』

그때 안에서 불이 켜졌다. 그리고 한 사내가 입구에 얼굴을 내밀었다.

『좋소. 내려와서 얘길 좀 합시다.』

『형씨가 도치 형님이슈?』

『그렇소. 형씬 뉘쇼?』

『나는 이름없는 나그네올시다.』

『지나가는 파객치곤 호기가 대단하시군.』

사내의 목소리는 걸직했다. 늠등을 얻어놨는데도 자, 연해 보였다. 온갖 풍상을 겪 사내다왔다.

『내려가곤 싶은데 옆의 애들이 신경 쓰입니다.』

『애들아, 비켜서라.』

『내 옛날 이름이 할배였소. 그러니 어지간하면 맘 놓고 내려가게 해주쇼.』

『소문 들어 알고 있었소. 진작 그렇다고 하실 일이지. 애들아 비켜라.』

도치가 이렇게 말했다. 사내들이 모두 도치 옆에 나란히 섰다. 모두 열두명이었다. 생김새나 풍채로 보아서 솜씨께나 있어보이는 사내는 도치까지 다섯명이었고 나머지 애들은 모두 남창노릇을 하는 사내같았다.

『그럼 내려가리다.』

나는 계단을 내려갔다. 도치는 약속대로 대여섯 발짝 좀 떨어져 주었다. 큰 홀에는 아무 장식없는 접대용 소파가 놓여 있었다. 위층처럼 밀실로 된 방과 머리손질을 할수 있는 미용도구들이 놓여있는 게 보였다.

『도치 형, 불쑥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볼일이 있어서 왔으니 이 애들은 들어가 있게 해주쇼.』

『그럽시다. 들어가 얌전하게 있어라. 귀한 손님 오셨다.』

도치의 말은 제법 손님대접을 하는 말투 같았지만 실상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대기하라는 명령이었다. 귀한 손님이란 실력이 만만찮으니 몸조심하라는 암호였다.

『무슨 일로 오셨소. 우리 할배 형 소문이야 익히 들었던 터요. 동주 형님이 퍽 아끼셨던 모양입디다.』

『동주 형님한테 귀염 좀 받았지요. 도치 형 소문도 그 형님편에 많이 들었지요.』

나는 그를 깍듯하게 대했다. 어떻게 따지든 내겐 대선배였다. 정같으면 감히 이런 식의 상면조차 할 수 없었다.

『본론으로 갑시다.』

『좋지요.』

『보습비라고 있지요. 노래하는 애들 말입니다. 언니되는 수향이가 증발했는데 내가 찾아다니고 있읍니다. 도치 형이 도와줬으면 해서 왔읍니다.』

도치는 키득거리며 웃었다.

『잘못 오셨소. 난 이 짓이나 해서 먹고 사는 놈이라 그런 거 신경 쓸 새가 없소. 그 문제라면 가는게 좋을거요.』

도치는 여유만만한 태도였다.

『이거 왜 이러슈. 알만하니까 온 거 아뇨. 나도 오늘은 성질 차고 왔어요. 좋게좋게 끝냅시다.』

『여봐 형씨. 아래 놓고 깊은 건 알고 덤벼야잖아. 남의 밥이지만 한 구덩이에서 밥 먹었다는 인연 아셨음 이런 대접 안했을 져야. 잔소리 말고 곱게 가봐.』

도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도 따라 일어섰다. 애들이 천천히 걸어와서 나를 둘러쌌다.

『도치 형, 손님대접 이렇게 하는 거 아뇨. 성질 차고 왔다잖소. 성주하이 밑 닦아주는 거 알고 온 놈요. 곱게 가게 해주쇼.』

『이 아이가 저녁 잘못 먹은 모양이다. 소화 좀 시켜줘라.』

도치가 의젓하게 한마디 했다. 애들 손에 날이 허옇게 선 칼이 쥐어져 있었다. 나는 손을 저어보였다.

『도치 형, 우리 말로 합시다. 내가 할수 있는 마지막 양보요.』

『이 자식이 점점 귀엽게 노는군. 재롱 더 떨게 해줘라.』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애들이 한꺼번에 덮쳤다. 나는 선체 공중회전하며 소퍼로 굴렀다. 그리고는 방향을 바꾸는 애들을 차례로 걷어찼다. 세 녀석이 고꾸라지자 나머지 녀석들이 뒤로 물러섰다.

『칼 버려.』

그래도 애들은 나를 꼰고 있었다. 나는 표창 두개를 던졌다. 애들이 칼을 버리고 주저 앉았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도치 이리 와. 어서!』

도치 손에는 표창 네개가 쥐어져 있었다. 그도 동주 형 밑에서 표창 실력을 닦은 사내였다.

『표창 내려. 뒈지고 싶지 않으면 어서! 애들은 장난하면 눈깔 빠져.』

『너 오늘 비로소 임자 만났구나.』

도치는 여유있게 지껄였다.

『동주 형님한테 가서 무초스님 얘기나 전해라. 장난하다 눈깔 빠지는 거라고.』

나는 소퍼 뒤로 한바퀴 더 굴렀다.

쉬익 쉬익!

표창이 소퍼에 꽂혔다. 나는 벌떡 일어나 표창을 들어 보였다. 녀석이 잽싸게 내 쪽으로 굴렀다. 나는 녀석의 턱을 걷어찼다. 도치가 대굴대굴 굴렀다. 실력자한테 나는 한방 이상을 쓰지 않는 성미였다.

<다음주에 계속>

무슨 광고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성심껏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한국일보광고국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5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일요일에 일하실 경험있는 스토아 헬퍼(여자분)구함
정오 12시~오후8시까지 위치 : 다운·타운
☎ : 921-0624

▪램프, 갓 미싱 집에서 하실분 구함.
▪영어를 하실수 있어야함.
Lamp Boutique (655 mt. Pleasant Rd,
☎ : 483-7643, 221-4433

고급코트를 만들수있는 친절라 사욕을 원하시는 분, 소자본으로 지하실에서 사욕할수 있음.
☎ : 859-4866

여자 룸 메이트 구함
☎ : 222-3877 (Mrs. 김)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헬퍼구함.
여자(캐쉬어), 남자(헬퍼)
다운타운 지역임. 시간은 원하는 만큼드림.
오후 7시까지는 ☎ : 368-8138
그 이후는 929-0230으로 연락바람.

버라이어티 가게에서 경험있는 캐쉬어 구함.
오후5시부터 10시까지 근무(서부지역)
261 스칼렡 로드, ☎ : 767-0762

한국요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써
경험이 있으신분을 구합니다.
월, 토(3시~5 시) ☎ : 532-0602

도나스 가게에서 주말(금, 토)에 밤일하실분 구함. (다운타운) 시간 : 오후11 : 00~오전7 : 00
☎ : 977-2299

입주하셔서 애기봐주실분
☎ : 431-7168

도나스 샆에서 일하실 여자분 구함.
시간 : 오후4시~12시, 밤12시~오전8시
(FULL 타임)

그리고 도나스 가게를 맡아서 일하실 부부원함
☎ : 531-2689

개스스테이션에서 일하실분 급구
가능하면 다운타운에 사시는 분 환영
☎ : 537-0208 박(아침9시~밤10시까지)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매매및 양도

버라이어티스토아 매매(아파트지역 빌딩내 위치)
턱샆과 같음. 해밀톤 시청뒤.
아이들 손님은 없음. 주매상 : $5600. 리스4년+10년
렌트 : $700(전기, 물세포함) 아스킹 : 80,000+스탁
관심있는분만 연락바람.
☎ : 1-527-0025 (박)

전망이 밝은 70여개의 가게가 들어선 새로지은 몰 안에 Take-out food Business.
☎ : 299-1713

버라이어티, 그로서리, 스낵·바, 드라이 크리닝을 겸해 할수있는 상점, 살림집 포함. (베더스트×로렌스)
오전10시~오후8시 ☎ : 783-0134

═ 여자 란제리 판매점 ═
다운타운 빌딩안 쇼핑 몰 안에있음.
여자 언더웨어, 나이트 웨어 취급.
장래성이 좋으며, 현재매상 대단히 양호함.
☎ : 363-2601

수입이 좋은 상점→ Coin Laundry
편안하고 안전한 비지네스
사정상 급매코저함.
(블루어 × 오싱톤)
☎ : 532-7094(낮), 241-8058(밤)9시30분까지

주에 6일간 영업(선물, 옷등 기타)
30년간 해오던 잡화상을 귀국관계로 급매함.
가격 : $10,000 + 스탁(대략 $25,000)
* Penny Pincher Store
* 888 Danforth Ave.
☎ 461-9771 Mr. Lue

도나리아(Donnaria)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좋은가게를 구입하실수 있는기회 !
1362 St. Claia W. ☎ : 654-7240

그로서리 가게 매매
조그마한 가게를 원하시는분 연락바람.
61메인 스트리트 ☎ : 694-7848

3베드룸(방갈로) 차고있음
마캄·로랜스부근 즉시 입주가능
☎ : 822-4480(Mr. 박)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보 석

다이아몬드·스타=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Mr. LEE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 : 751-9236, 757-2106 홍진표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미 용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킴스 미용실 ☎ :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 하우스 뒤)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사 진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commercial ·art photos ·weddings ·VIDEO 촬영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학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60 MINUTE PHOTO LAB
▸1시간에 모든 현상이 가능
▸교포께 특별히 10% 할인해 드립니다.
▸프린트 싸이즈(4×6)품질보장
▸KNOB HILL FARM DIXIE MALL ☎ : 274-4328
50 BLOOR ST. W. ☎ : 967-7121

시설및 수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패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보수·가게신설·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김부원
☎ : (B)245-5544(PAGING)2790, (R)255-2161

PLUMBING(상, 하수도 수리, 시설)
☎ : 465-2584, 531-6246(Mr. Lee)

목공소 FineWoodwork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676-1173 769-9468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싸우나 설치, 진열 찬장등 가구제작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평가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9-2963 MR. 오

INVENTORY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 주소를 이전하실때 3일전에 꼭 변경통보를 해주십시요.

에어콘·히팅·냉장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 : 221-5441
미스타 이

PEOPLE'S
(상업용, 가정용 냉동기)
499-1203
미스타 원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양 장 점

샐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운전학교

오 행 근 운 전 학 교
423-3025

자동차수리

ROGERS GARAGE 변 달 원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 : 651-9324(B)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써비스
95 POR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꽃 집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 751-5851(B), 757-6711(R) 이동환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 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 배달함.
875 JANE ST. TOR. ☎ : B)769-0609 R)242-5194(여정용)

정 순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꽃 집 크로스웨이(구 플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85 닐파·김

한 방 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Ontario St. #517(St. Jamestown)박영숙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웅담●녹용●우황청심환●사향●경면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하르빈 한약상사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완치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면,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서 춘 봉
☎ : (B)536-6854 (R)743-0752

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 : 273-7300 MISSISS.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 : 960-5736(B), 844-0178(R)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CA Office근무중
●BOOK KEEPING & ACCOUNTING 이영철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태 권 도

박종수 태권도장 사범 :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손명수 태권,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교포들에게 반액으로 봉사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 (웨스톤×로렌스) 로브로 앞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럭키 DRAPERY
4141 DIXIE RD. (딕시×버남돌프)
☎ : 625-0698 최 원 보

기 타

O'Kim Embroidery
각종 꽃수, 명찰, 마크, 아동복, 부인복
Covering등. ☎ : 633-9341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8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혜숙

ZAP SUREKILLER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통닭, 오뎅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전문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함.
☎ : 537-0432(미스타, 리)

새로운
집을 장만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 한국안내광고
부동산 매매에서
찾아 보십시오.

●광고문의● 월~토
533~2361~4

流星의 賦 <289>
李炳注 作
李友範 畫

風雅와 策謀 ⑳

미천한 빈농의 아들이, 그나마 19세의 청년이 갑자기 정신(廷臣)이 된다는 것은 고래로 있어 본 적이 없었던 일이다。한데 이와 같은 이례(異例)의 입신을 세에 공포를 느낀 자가 있었다。그것은 그의 생부(生父) 야스께(彌助), 그때의 이름으로 미요시가즈이찌(三好一路)였다。

생부(生父)는 히데쓰구에게 말했다。

『천도(天道)를 두려워할 줄 알라』

야스께는 어디서 들었는지 자기의 실력없이 이례의 영달을 한 자치고 끝이 좋았던 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그래서 한 말이었다。하늘을 두려워하라고。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는 건가요』

히데쓰구는 촌부연(村夫然)한 야스께를 보고 있으면 자기 출생의 미천함을 눈앞에 그려놓고 있는것 같아서 항상 불쾌했다。그는 출세를 할 수 있음만 하니까 영달(榮達)한 건데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느냐고 쏘았다。

『아니 그런 생각은 잘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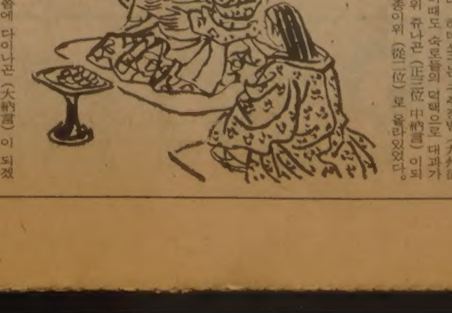
야스께는 거듭 말했지만 이젠 높은 벼슬에 올라 기고만장한 아들의 싸늘한 눈초리를 천시할만한 기력도 없었다。

『애비야, 앞으론 여기 오지도 말라』

히데쓰구는 사정없이 내 뱉었다。

그런데 수길의 의도는 아스께완 달랐다。히데쓰구의 영달을 천하에 납득시키기 위해선 다음 다음으로 화려한 이력을 만들어야하는 것이다。

20세 때 수길을 따라 히데쓰구는 구주정벌(九州征伐)에 참가 했는데 이때도 숙로들의 덕택으로 대과가 없었다。이듬 해 정삼위 쥬나곤(正三位中納言)이 되었는데 그 다음 달엔 종이위(從二位)로 올라있었다。



『이대로 가면 내년쯤에 다이나곤(大納言)이 되겠읍니다』

하고 마에다겐지(前田玄以)는 히데쓰구를 기쁘게 하려고 했다。마에다는 풍신가(豊臣家)의 대조정절충(對朝廷折衝)을 맡고 있는 경도봉행(京都奉行)、지금으로 말하면 경도시장(京都市長)쯤 되는 사람인데、그런 소릴 해도 기뻐하는 기색이 없는 히데쓰구를 소지천만(笑止千萬)하다고 생각했다。마에다는 다이나곤이라고 하는 관직은 후지와라공경(藤原公卿)가운데서도 가격(家格)이 높은 아네고오지(姉小路)、아스가이(飛鳥井)등조차 노년(老年)에 이르러서야겨우 오를 수 있을까 말까한 높은 관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히데쓰구는

『그런가。그 다이나곤에 몇년이면 오를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얼굴빛을 변했다。

그런데 그 이듬해 뜻 밖인 일이 생겼다。뜻밖인 일이라고 했으나 풍신정권(豊臣政權)에 있어선 일대경사였다。수길의 소첩 아사이씨(淺井氏)에서 남아가 탄생한 것이다。자기에겐 아들이 없는 것이 아닐까 하고 걱정하고 있었던 수길에겐 이 이상 기쁜 일이 있을 수 없었다。장생(長生)을 약속한다는 속신(俗信)에 의해 스떼(捨)라고 이름지었다。천하는 수길의 기쁨에 영합하기 위해 광분했다。제후는 각각 성지(城池)를 기울일 만큼 엄청난 축하품을 보냈다。천황까지도 예외는 아니었다。그렇게 되자 히데쓰구의 존재는 희미한 빛깔로 되었다。

물론 다이나곤(大納言)의 벼슬은 온데 간데 없이 되었다。히데쓰구의 관작(官爵)을 너무 올려놓으면 이세마 낳은 아들의 장래를 위해 좋지 못한 것이란 계산이 작용한 것이다。

조 규 혁
종 합 보 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233-6236
745-8236